

여성노동시장의 중장기전망과 과제

1991

한국노동연구원

目 次

I. 序 論

II. 女性人力の 構造變化

1. 經濟活動人口의 變化
2. 非經濟活動人口의 構造變化
3. 就業者의 質的 變化
4. 新規勞動力의 學歷別 就業現況
5. 職業訓練의 女性現況

III. 女性人力の 勞動供給行態分析

1. 問題의 提起
2. 女性의 經濟活動參加 模型
3. 利用資料 및 變數選定
4. 模型設定 및 推定結果

IV. 製造業에서의 女性人力需要分析

1. 問題의 提起
2. 模型設定
3. 資料 및 推定方法
4. 實證分析結果
5. 要約 및 結論

V. 結論 및 政策課題

1. 職業訓練의 擴大
2. 雇傭制度의 改善
3. 職務再編成 및 職種開發
4. 育兒・託兒施設의 擴充

表目次

- 〈표 II-1〉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추이
- 〈표 II-2〉 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변화추이
- 〈표 II-3〉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연령계층별 변화추이
- 〈표 II-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구조변화
- 〈표 II-5〉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변화
- 〈표 II-6〉 연도별·성별·교육기관별 졸업자의 취업현황
- 〈표 II-7〉 여자 산업별·교육기관별 취업현황
- 〈표 II-8〉 여자 직업별·교육기관별 취업현황
- 〈표 II-9〉 기능인력 양성실적
- 〈표 II-10〉 양성주체별·성별 기능사 양성실적
- 〈표 II-11〉 여성의 공공직업훈련 현황
- 〈표 II-12〉 여성의 사업내 직업훈련 현황
- 〈표 II-13〉 여성의 사업내훈련 직종별 분포
- 〈표 II-14〉 여성의 인정직업훈련 현황
- 〈표 II-15〉 여성의 인정직업훈련 직종별 현황
- 〈표 II-16〉 성별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
- 〈표 III-1〉 성별·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 〈표 III-2〉 여성인력의 결혼상태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 〈표 III-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전국)
- 〈표 III-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비농가)
- 〈표 III-5〉 소득추정치의 계층별 분포
- 〈표 III-6〉 설명변수의 평균 및 분포
- 〈표 III-7〉 경제활동참가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여성전체)
- 〈표 III-8〉 경제활동참가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유배우여성)
- 〈표 IV-1〉 평균 및 연말피고용자수의 비교
- 〈표 IV-2〉 전제조업의 요소소득배분을 방정식 추정치
- 〈표 IV-3〉 전제조업의 보완탄력성 추정치
- 〈표 IV-4〉 부문별 요소소득배분을 방정식 추정치
- 〈표 IV-5〉 부문별 보완탄력성 추정치

I. 序論

總人口의 과반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1988년 현재 經濟活動人口의 39.8%, 就業人口의 40.1%가 여성이라는 性別構成에는 상대적으로 그 인식도가 낮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이들 여성인력은 남성에 비해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需要와 供給이 상호 교차하는 女性勞動市場에서의 經濟的 問題點 역시도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經濟적·사회적 혹은 政策적 認識提高가 요구된다 하겠다.

양적 팽창과 더불어 여성인력의 교육수준의 증가 등 질적인 면에서의 변화도 크다. 1981년에 여성경제활동인구의 19.2%만이 고졸이상의 人力이던 것이 1988년에는 36.0%까지 증가하여 지난 7년간 16.8%포인트가 증가하였다. 이는 물론 既存人力의 教育水準 증가의 원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고학력자의 新規經濟活動參加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女性就業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변화도 크다. 「韓國의 社會指標」(1988, p. 113)에 나타난 결과에 의하면 1984년과 1988년을 비교할 때, 여성은 “가정에만 전념”해야 된다는 것은 27.8%에서 21.2%로 감소한 반면 그밖에 취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는 모두 그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자녀성장후 취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8.9%에서 21.0%로 증가하였고 여성 자신들의 태도변화는 9.4%에서 22.5%로 더욱 증가폭이 커, 향후 기혼여성의 經濟活動參加는 더욱 증가되리라 예측할 수 있다.

80년대에 女性勞動市場에 또다른 큰 변화는 노동조합의 설립증가와 임금 등 제반 근로조건에 미치는 노조의 역할증대를 꼽을 수 있다. 이는 향후 資金決定에 需給事情을 반영하는 市場的 要因뿐만 아니라 勞動組合을 통한 制度的 要因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인바, 노조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이 同一勞動 同一賃金 혹은 差別賃金의 완화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그동안 雇傭 및 賃金에 차별받던 여성근로자의 임금상승폭은 더욱 커지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다. 賃金上昇이 고용에 미치는 陰(-)의 효과는 대단히 크고, 특히 新規人力의 노동시장 진입후 취업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향후 노동공급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여성인력의 실업문제를 해결키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신규 노동시장 진입인력뿐만 아니라 이미 취업중인 근로자도 對男性人力과의 상호대체 혹은 보완관계에 따라서 여성인력의 고용사정에 중대한 영향이 오므로 이들 남녀인력의 수요분석을 통한 정책적 대응도 女性勞動市場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이 女性人力의 需要와 供給事情 및 기타 制度的 要因의 커다란 변화가 향후 계속되리라는 전망하에 이들의 勞動供給과 行態分析과 生産에서의 需要分析을 통하여 中長期 女性勞動市場을 전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市場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코자 한다. 따라서, 제Ⅱ장에서는 여성인력 수급사정을 量的·質的으로 심도있게 변화과정을 분석하고, 제Ⅲ장에서는 勞動供給 行態分析을 통한 향후 供給人力의 量的變化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제Ⅳ장에서는 여성인력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과정에서 성질이 다른 要素와의 關係 및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技術變化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장기 여성노동의 고용사정을 전망코자 한다. 끝으로 제Ⅴ장에서는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함으로 結論에 이르고자 한다.

Ⅱ. 女性人力의 構造變化

1. 經濟活動人口의 變化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여성인력의 量的 構造變化를 파악하기 위하여 全勞動力을 性別로 구분하여 〈표 Ⅱ-1〉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生産可能性人口 혹은 勞動可能人口로 정의하는 15세이상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1975년 2,091만 8천명에서 1988년 2,960만 2천명으로 지난 13년간 868만 4천명의 양적증가를 가져왔다. 여자 100에 대한 남자의 비율을 性比로 할 때, 각년도에 모두 107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남녀의 변화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간별로 남녀 공히 1975~80년 기간동안에 3.1%의 연평균증가율에서 1985~88년 기간동안에 2.4%의 연평균증가율로 증가율 둔화현상을 볼 수 있다. 이의 주된 원인은 그동안 꾸준히 감소되고

있는 出生率의 低下¹⁾에 있다고 파악될 수 있다.

노동의 공급측면에서 15세이상 인구는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나뉜다. 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就業者와 현재 직업은 없지만 취업을 위하여 求職活動을 하고 있는 失業者로 구분되는데 먼저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를 살펴보자. 이는 1975년에 1,219만 3천명에서 1988년에 1,730만 5천명으로 511만 2천명이 증가하여 13년간 약 42%가 증가하였다.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70년대 후반에 3.37%에서 80년대 전반에 1.55%로 둔화되다가 그 이후로 다시 3.47%로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성별로 보면 1975~88년간에 남자는 782만 2천명에서 1,041만 4천명으로 33%, 여자는 437만 1천명에서 689만 1천명으로 58%의 증가를 보임으로써,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제활동인구증가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를 15세이상 인구로 나눈 값을 경제활동참가율로 정의한 비율에서도 전체적으로는 1975년 58.3%에서 1988년 58.5%로 큰 변화는 없다. 그러나 이를 성별로

〈표 II-1〉 성별 경제활동인구의 변화추이

(단위: 천명, %)

	1975	1980	1985	1988	연평균증가율		
					1975~80	1980~85	1985~88
15세이상인구	26,918	24,463	27,553	29,602	3.13	2.38	2.39
남 자	10,107	11,804	13,395	14,294	3.10	2.38	2.42
여 자	10,811	12,659	14,258	15,308	3.16	2.38	2.37
여성비율 ²⁾	107.0	107.2	107.2	107.1			
경제활동인구 ³⁾	12,393	14,433	15,582	17,305	3.37	1.55	3.47
남 자	7,822	9,019	9,617	10,414	2.85	1.28	2.65
여 자	4,371	5,412	5,975	6,891	4.27	1.98	4.75
여성비율	35.9	37.5	38.3	39.8			
취업인구 ³⁾	11,692	13,683	14,970	16,870	3.14	1.80	3.98
남 자	7,431	8,462	9,137	10,099	2.60	1.53	3.34
여 자	4,261	5,222	5,833	6,771	4.07	2.21	4.97
여성비율	36.4	38.2	39.0	40.1			

주 : 1) 여성비율은 남자 100에 대한 비율임.

2) () 안은 경제활동참가율.

3) () 안은 실업율.

자료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보면, 남자는 77.4%에서 72.9%로 감소한 반면 여자는 40.4%에서 45.0%로 오히려 증가하여 相對的 意味에서 참가율의 성별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남녀비율로 보면 1975년 여성의 비율이 35.9%이던 것이 1988년에는 39.8%로 증가되었다.

경제활동인구 중 失業者를 제외한 취업자의 변화를 살펴보자. 취업자는 1975~88년간에 1,169만 2천명에서 1,687만명으로 44.3% 증가하였고, 성별로는 남자가 35.9%, 여자가 58.9% 증가하여 여자가 23.0%포인트 더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취업자의 여성비율이 1975년

36.4%이던 것이 1988년에는 40.1%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자의 기간별 연평균증가율은 80년대 전반에는 낮고 후반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로는 전기간을 통하여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전체적인 인력의 需給事情을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인구의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면, 1975~80년 사이에 경제활동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이 취업자의 그것보다 다소 높았지만, 1980년 이후는 취업자의 증가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말 우리 경제가 침체국면이어서 저조한 經濟成長(1979년 7.0%, 1980년 -4.8%)이 雇傭創出을 이루지 못했고, 80년대에 와서 비교적 높은 성장(1981~87년 연평균 9%)이 노동의 수요를 증대시켜 공급의 증가를 앞지르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失業率도 1980년 5.2%로 가장 높았고, 성별로도 남자 6.2%, 여자 3.5%로 전기간을 통하여 남녀공히 가장 높았다.

자료에 나타난 취업자 현황을 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취업자의 연평균증가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고, 실업률에서도 1980년에 여자 3.5%에서 1988년 1.7%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어 전기간에 걸쳐서 남자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성별로 요약하면, 7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여성노동의 공급을 반영하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율에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수요가 반영된 취업자의 증가율에서도 남자보다 월등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며, 실업률도 여자가 남자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위 副次勞動力(secondary labor)인 여성의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가구에서의 主勞動力(primary labor)이 대부분인 남성보다 失業狀態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거나 혹은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여건이 좋지 않을 때 아예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고 非經濟活動人口로 남아 있게 되는 성향이 훨씬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女性人力 혹은 副次勞動力(연로자, 가정주부, 학생 등)에서 失望勞動者效果가 附加勞動者效果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실증분석을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결과이다.³⁾ 따라서, 앞으로 경제성장과 더불어 就業機會가 확대되면 잠재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인력의 무한한 공급 가능성이 우리의 노동시장에 내재해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겠다.

주석 1) 여자 1,000명당 합계출산율(TER)의 변화는 6.0(1960), 4.3(1970), 2.8(1980) 및 1.7(1985)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석 2) OECD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의 연도별 변화를 우리나라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는 <부표 1> 참조.

주석 3) 裴茂基, 『勤勞經濟學』, 經文社, 제2판, 1989, p. 137.

2. 非經濟活動人口의 構造變化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하면 비경제활동인구인바, 이는 가사에 종사하는 가정주부, 학교에 다니는 학생, 일할 수 없는 연로자와 심신장애자 및 자발적으로 자선사업 및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이다. 이들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의 많은 부분은 일할 의사만 있으면 失業이건 就業이건 경제활동상태가 되는데, 특히 기혼여성인 가정주부는 노동공급의 잠재원으로서 현재 경제활동 하는 인력에 못지않게 우리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에 틀림없다(구성열, 『우리나라 勞動力의 潛在的 供給源에 관한 研究』, 1985).

남자의 경우는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미하지만, 여자의 경우는 다른 선진제국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아직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여부가 향후 노동공급에 지대한 영향을 주리라는 판단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이들의 경제행위분석은 우리나라 노동공급의 잠재원 분석에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표 II-2>에 의하여 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총수면에서는 1965년 507만 3천명에서 1988년 841만 7천명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양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들의 상태별 구조변화를 살펴보면 ‘家

표 II-2> 여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 변화추이

(단위: 천명, %)

	총 수	가 사	통 학	연소·연로	기 타
<전 국>					
1965	5,073 (100.0)	4,060 (80.0)	236 (4.7)	630 (12.4)	145 (2.9)
1970	5,579 (100.0)	4,233 (75.9)	545 (9.8)	705 (12.6)	96 (1.7)
1975	6,440 (100.0)	4,698 (73.0)	841 (13.1)	788 (12.2)	112 (1.7)
1980	7,247 (100.0)	5,134 (70.8)	1,148 (15.8)	877 (12.1)	89 (1.2)
1985	8,283 (100.0)	5,715 (69.0)	1,645 (19.9)	783 (9.5)	140 (1.7)
1988	8,417 (100.0)	5,647 (67.1)	1,842 (21.9)	730 (8.7)	199 (2.4)
<농 가>					
1965	2,628 (100.0)	2,106 (80.1)	56 (2.1)	394 (15.0)	71 (2.7)
1970	2,198 (100.0)	1,693 (77.0)	120 (5.5)	351 (16.0)	34 (1.5)
1975	2,923 (100.0)	1,362 (46.7)	225 (7.7)	415 (14.2)	25 (0.8)
1980	1,804 (100.0)	1,458 (80.8)	315 (17.5)	297 (16.5)	35 (1.9)
1985	1,476 (100.0)	836 (56.7)	335 (22.7)	270 (18.3)	36 (2.4)
1988	1,180 (100.0)	623 (52.8)	310 (26.3)	207 (17.5)	41 (3.5)
<비농가>					
1965	2,445 (100.0)	1,954 (79.9)	180 (7.4)	237 (9.7)	74 (3.0)
1970	3,381 (100.0)	2,540 (75.1)	426 (12.6)	355 (10.5)	61 (1.8)
1975	4,413 (100.0)	3,337 (75.6)	617 (14.0)	373 (8.5)	87 (2.0)
1980	5,443 (100.0)	4,057 (74.5)	833 (15.3)	479 (8.8)	53 (1.0)
1985	6,807 (100.0)	4,879 (71.7)	1,310 (19.2)	513 (7.5)	104 (1.5)
1988	7,238 (100.0)	5,024 (69.4)	1,532 (21.2)	524 (7.2)	158 (2.2)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9, 1988.

事’의 경우 1965년 406만명으로 전체의 80.0%이던 것이 1988년에는 564만 7천명인 67.1%로 양적 팽창은 이루었지만 이의 구조적 비중은 감소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通學’의 경우 1965년 4.7%이던 것이 1988년에는 21.9%로 크게 증가되었음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는 그동안 높은 경제성장률, 소득수준 향상 및 자녀수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지금까지 관례상 결혼후 가사에 종사하던 인력이 경제활동(직장생활)을 계속한다든지, 육아후 즉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든지, 혹은 여성의 上級學校進學率이 꾸준히 증가했다든지하는 경제·사회적변화 등을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 밖에 ‘年少·年老’의 비경제활동상태의 비중은 1965년 12.4%에서 1988년 8.7%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정년의 연장이나 평균수명의 연장 등이 노년층으로 하여금 계속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직·간접적 원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구조변화를 농가·비농가의 가구형태로 구분하여 보더라도 전체적인 구조변화에는 차이가 없다. 그러나, 농가의 경우 비농가보다 ‘家事’의 비중이 줄고, ‘통학’의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가사’의 경우 1965~88년 기간동안 農家は 80.1%에서 52.8%로, 非農家は 79.9%에서 69.4%로 나타났고, ‘통학’의 경우는 농가에서 같은 기간에 2.1%에서 26.3%로, 비농가는 7.4%에서 21.2%로 증가한 현상을 엿볼 수 있다.

‘연소·연로’의 경우 농가는 15.0%에서 17.5%로 증가한 반면 비농가는 9.7%에서 7.2%로 다소 감소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양적 변화를 보면 1965~88년 기간동안 농가에서는

감소(39만4천→20만7천명)하고 비농가에서는 오히려 증가(23만7천→52만4천명)하였는데, ‘연소자’로서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거의 무시할 만하다고 하면 ‘年老者’로서의 비경제활동인구가 특히 비농가에 급증한다고 판단되어, 향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이들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는 노인복지문제 혹은 실업문제를 야기하여 정책적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다.

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하여 연령별로 취득가능한 자료(1985, 1988년)을 중심으로 연령별 변화추이를 살펴보자(표 II-3 참조). ‘가사’의 경우 20~24세에서 60만명에서 45만 1천명으로 감소하였고, 25~29세는 125만 4천명에서 120만 2천명으로 다소 감소한 반면, 30~34세 계층에서는 오히려 82만 2천명에서 9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통학’의 경우는 대부분이 24세이하에 해당되는데, 이의 비중은 15~19세에서 1985년

〈표 II-3〉 비경제활동인구의 상태별·연령계층별 변화추이

		(단위: 천명, %)				
		총 수	가 사	통 학	연소·연로	기 타
1985	15~19세	1,492	73	1,409	1	11
	20~24	840	600	217	-	23
	25~29	1,290	1,254	16	-	20
	30~34	834	822	3	-	10
	35~39	611	602	1	-	9
	40~49	919	899	-	-	19
	50세이상	2,297	1,465	-	782	51
	계	8,283 (100.0)	5,715 (69.0)	1,645 (19.9)	783 (9.5)	140 (1.7)
1988	15~19세	1,666	55	1,592	1	19
	20~24	704	451	228	-	26
	25~29	1,242	1,202	15	-	26
	30~34	927	910	4	-	13
	35~39	584	572	2	-	11
	40~49	894	864	-	-	31
	50세이상	2,401	1,595	1	729	75
	계	8,417 (100.0)	5,647 (67.1)	1,842 (21.9)	730 (8.7)	199 (2.4)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5, 1988.

94.4%(140만 9천명/149만 2천명)에서 1988년 95.6%(159만 2천명/166만 6천명)로 증가하였고, 20~24세에서도 25.8%에서 32.4%로 증가하여 진학률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다.

‘연소·연로’의 상태 구분의 99% 이상이 연로자이고 보면, 노인들의 향후 경제활동 측면에서의 고려도 시급히 요청된다 하겠다. 즉,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가사’나 ‘연로’의 구분에 속한 인구의 경제활동인구예로의 상태변화(그들이 취업자이건 실업자이건)가 향후 지속되리라 생각되어 이들 잠재노동력의 적절한 經濟的活用과 失業 및 福祉側面에서의 政策的 배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3. 就業者의 質的變化

이상에서 살펴본 여성인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역시 노동공급의 중요한 차원이므로 경제활동인구나 취업자의 산업별 혹은 직종별 교육수준이나 현장훈련을 근거로 개괄적인 노동의 질을 평가하고자 한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의 教育程度別 構造變化를 살펴보자(표 II-4 참조). 1981년 이후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노동력의 교육수준 상승에 의한 노동의 질적 향상은 컸다고 보인다. 우선

전국 총수면에서 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대졸이상의 학력자는 1981년 7.0%에서 1988년 12.5%로 증가하였고, 고졸자도 같은 기간에 23.8%에서 35.7%로 증가한 반면, 국졸이하는 오히려 48.6%에서 31.1%로 크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고졸이상의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981~88년 기간동안에 30.8%에서 48.2%로 17.4%포인트나 증가하였다.

이상의 구성비를 성별로 살펴보면 국졸이하 인력의 감소는 남녀 같은 현상이나 중졸의 경우는 남자가 감소한 반면 여자는 17.4%에서 20.7%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고졸자나 대졸이상의 노동력의 구성비 역시 남녀 공히 그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여자 고졸자의 경우 1981년 16.5%에서 1988년 29.1%로 7년간 12.6%포인트 증가하여 남자의 11.9%포인트(28.2~40.1%)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는 남자가 6.7%포인트(9.5~16.2%) 증가하였고, 여자는 4.2%포인트(2.7~6.9%) 증가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그 비중이 크게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988년 현재 우리나라 총노동력(經濟活動人口)의 48.2%가 고졸이상의 학력자이며,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56.3%, 여자는 36.0%로 두드러진 인력의 고학력화 현상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를 제외한 취업자만의 교육정도별 구성비는 <표 II-5>에 나타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경제활동인구의 교육정도별 구성비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教育程度別 就業率 혹은 失業率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력이 낮은 국졸이하의 구성비는 취업자가 경제활동인구보다 높고, 고졸이나 대졸이상의 경우는 그와 반대여서 결국 남녀 공히 고학력자의 실업률이 저학력자보다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표 II-4> 교육정도별 경제활동인구 구조변화(전국)

(단위: 천명,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총 수	14,683	15,033	15,118	14,997	15,582	16,116	16,873	17,305
국졸이하	48.6	44.4	42.2	38.7	36.8	34.8	33.0	31.1
중 졸	20.6	21.7	21.8	21.5	21.2	21.0	21.1	20.7
고 졸	23.8	26.0	27.7	30.2	31.5	33.1	34.4	35.7
대졸이상	7.0	7.9	8.3	9.6	10.5	11.1	11.5	12.5
남 자	9,304	9,296	9,305	9,338	9,617	9,819	10,138	10,414
국졸이하	39.8	35.3	33.4	30.2	28.2	26.4	24.7	23.1
중 졸	22.5	23.4	22.9	22.4	22.0	21.4	21.3	20.6
고 졸	28.2	30.5	32.3	34.6	36.0	37.7	38.9	40.1
대졸이상	9.5	10.8	11.4	12.8	13.8	14.5	15.1	16.2
여 자	5,479	5,737	5,814	5,659	5,974	6,296	6,735	6,891
국졸이하	63.4	59.2	56.3	52.8	50.7	47.9	45.5	43.2
중 졸	17.4	19.0	20.1	19.9	19.7	20.2	20.8	20.7
고 졸	16.5	18.7	20.2	22.9	24.3	26.1	27.5	29.1
대졸이상	2.7	3.1	3.4	4.4	5.3	5.8	6.2	6.9

자료: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경제활동인구연보』, 1987, 1988.

〈표 II-5〉 교육정도별 취업자 구조변화(전국)

(단위: 천명,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총 수	14,023	14,379	14,565	14,429	14,970	15,505	16,354	16,878
국졸이하	49.9	45.7	43.2	39.6	37.7	35.6	33.7	31.7
중 졸	20.5	21.6	21.7	21.4	21.1	21.1	21.2	20.7
고 졸	22.8	25.0	26.9	29.6	30.9	32.6	33.9	35.4
대졸이상	6.8	7.7	8.2	9.4	10.3	10.7	11.2	12.2
남 자	8,679	8,757	8,819	8,894	9,137	9,329	9,741	10,090
국졸이하	48.8	36.3	34.2	30.8	28.9	27.1	25.3	23.5
중 졸	22.3	23.2	22.7	22.3	22.0	21.4	21.3	20.7
고 졸	27.4	29.7	31.8	34.2	35.5	37.3	38.5	39.8
대졸이상	9.5	10.8	11.3	12.7	13.6	14.2	14.9	16.1
여 자	5,345	5,622	5,746	5,535	5,833	6,165	6,613	6,771
국졸이하	64.6	60.2	57.2	53.7	51.6	48.7	46.2	43.9
중 졸	17.4	19.2	20.1	20.0	19.9	20.4	20.9	20.8
고 졸	15.4	17.6	19.4	22.2	23.6	25.5	27.1	28.8
대졸이상	2.6	3.0	3.3	4.1	4.9	5.4	5.8	6.5

자료: 〈표 II-4〉와 동일.

4. 新規勞働力の 學歷別 就業現況

각급학교 졸업자의 勞働市場 進入實態와 이들 新規勞働力の 男女別 就業現況을 살펴보자(표 II-6 참조). 고졸자의 경우 1987년 현재 남자는 24.6%, 여자는 36.6%가 졸업후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30.1%가 취업하였다. 이를 時系列로 보면 1975년 남녀 각각 30.2%, 27.5%로 남자가 5.6%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오히려 9.1%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고졸자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1975년 이후 여자가 남자보다 취업률이 높았다는 것과 상급학교(대학교) 진학률이 낮았다는 두 가지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人文과 實業界 高校로 분리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인문고 남자의 경우 1975~87년간 취업률의 변화는 8.3%에서 5.2%로 다소 감소한 반면 실업고의 경우 50.6%에서 56.9%로 6.3%포인트 증가하였다. 여자의 경우 인문고 출신은 같은 기간에 11.7%에서 12.0%로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실업고의 경우는 49.6%에서 70.1%로 20.5%포인트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고졸자의 경우 남자보다는 여자가 취업률의 증가가 훨씬 빨랐고 특히 실업계 출신 여성인력의 취업률 상승은 괄목할 만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성별 차이없이 졸업후 거의 勞働市場에 進入하게 되는 고등교육기관 출신의 취업현황을 성별로 살펴보자. 초급대(전문대)의 경우 1980년 우리 경제의 심각한 침체의 해를 제외하고는 거의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1975년 44.5%에서 1980년 경기침체에 26.0%로 감소했고 1985년 이후에는 34~35% 수준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여자는 1975년 39.0%에서 1987년 49.0%로 꾸준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어, 전문대 출신 인력에 있어서 남자보다는 여자의 취업률의 상승이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4년제대학 졸업자의 경우는 1975년 58.4%에서 1987년에는 40.4%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같은 기간 60.7%에서 48.0%로 12.7%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52.9%에서 27.1%로 25.8%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렇게 볼 때 80년대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은 高學歷者의 취업률이 저조했고, 성별

〈표 II-6〉 연도별 · 성별 · 교육기관별 졸업자의 취업현황

(단위: 명, %)

		중 학 교			고 등 학 교								
					합 계			전문 고			실 험 고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계	남자	여자
1975	졸업자수	568,648	337,565	231,083	263,369	161,311	102,058	137,228	77,756	59,472	126,141	83,555	42,586
	취업자수	29,381	16,164	13,217	76,865	48,730	28,075	13,368	6,428	6,940	63,437	42,382	21,135
		(5.2)	(4.8)	(5.7)	(29.2)	(30.2)	(27.5)	(9.7)	(8.3)	(11.7)	(50.3)	(50.6)	(49.6)
1980	졸업자수	741,618	405,040	335,578	467,388	274,311	193,077	266,331	153,089	113,242	201,057	121,222	79,835
	취업자수	29,100	10,416	18,684	128,103	64,938	63,165	26,291	9,746	15,545	102,812	55,192	47,620
		(3.9)	(2.6)	(5.6)	(27.4)	(23.7)	(32.7)	(9.9)	(6.4)	(13.7)	(51.1)	(45.5)	(59.6)
1985	졸업자수	855,627	442,973	412,654	642,354	352,982	289,372	365,819	205,272	160,547	276,535	147,710	128,825
	취업자수				170,404	76,186	94,218	27,190	9,128	18,062	143,214	67,058	76,156
					(26.5)	(21.6)	(32.6)	(7.4)	(4.4)	(11.3)	(51.8)	(45.4)	(59.1)
1986	졸업자수	882,722	456,779	425,943	667,779	353,353	314,426	386,965	212,586	174,379	286,814	140,767	146,047
	취업자수				186,250	79,086	107,164	29,920	10,377	19,542	156,330	68,621	98,662
					(27.9)	(22.4)	(34.1)	(7.7)	(4.9)	(11.2)	(54.7)	(48.7)	(70.0)
1987	졸업자수	930,532	479,644	450,888	683,420	371,129	312,291	412,146	231,840	180,306	271,274	139,289	131,985
	취업자수				205,427	91,224	114,203	33,738	12,024	21,714	171,689	79,300	92,489
					(30.1)	(24.6)	(36.6)	(8.2)	(5.2)	(12.0)	(63.3)	(56.9)	(70.1)

자료: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각호.

고 등 교 육 기 관														
합 계			초·중·고(인문계)			고 육 계			대 학(문)			대 학(이)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계	남 자	여 자
44,455	29,865	14,590	1,538	380	1,158	5,841	2,700	3,141	33,610	23,893	9,717	3,466	2,892	574
23,859	17,460	6,399	620	169	451	653	226	427	19,635	14,493	5,142	2,951	2,572	379
(53.7)	(58.5)	(43.9)	(40.3)	(44.5)	(39.0)	(11.2)	(8.4)	(13.6)	(58.4)	(60.7)	(52.9)	(85.1)	(88.9)	(66.0)
59,722	39,653	20,070	1,940	571	1,369	2,494	643	1,851	49,735	33,923	15,812	5,553	4,515	1,038
35,153	24,536	10,617	408	148	260	2,354	602	1,752	28,349	20,402	7,947	4,042	3,384	658
(58.9)	(61.9)	(52.9)	(21.0)	(26.0)	(19.0)	(94.4)	(93.6)	(94.7)	(57.8)	(60.1)	(50.3)	(72.8)	(75.0)	(63.4)
214,879	133,022	81,857	73,927	40,667	33,260	4,331	1,734	2,597	118,584	75,813	42,771	18,037	14,808	3,229
93,739	62,235	31,504	29,556	14,231	15,325	2,152	690	1,462	48,552	35,820	12,732	12,479	11,494	1,985
(43.6)	(46.8)	(38.5)	(40.0)	(35.8)	(46.1)	(49.7)	(39.8)	(56.3)	(40.9)	(47.2)	(29.8)	(74.7)	(77.6)	(61.5)
235,668	144,091	91,567	75,572	41,044	34,528	3,547	518	3,029	137,848	87,241	50,607	18,701	15,298	3,403
98,052	64,044	34,008	30,669	13,946	16,723	1,886	286	1,600	51,667	38,119	13,548	13,839	11,713	2,127
(41.6)	(44.4)	(37.1)	(40.6)	(34.8)	(48.4)	(53.2)	(51.4)	(53.5)	(37.5)	(43.7)	(26.8)	(74.8)	(76.6)	(62.2)
260,720	155,804	104,916	82,657	43,925	38,732	5,429	1,800	3,629	151,965	93,355	58,610	20,660	16,724	3,945
114,249	74,405	39,844	33,902	14,888	18,974	3,930	1,580	2,350	60,718	44,857	15,861	14,760	12,425	2,335
(43.8)	(47.8)	(38.8)	(41.0)	(33.9)	(49.0)	(72.4)	(87.8)	(64.8)	(40.8)	(48.0)	(27.1)	(71.4)	(74.3)	(59.2)

로는 여성의 경우 고졸이나 전문대졸자의 취업률이 비교적 증가한 반면 4년제 대졸자의 경우는 상당히 고용악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보면, 첫째는 80년대초 우리 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요의 부족현상과, 둘째는 1980년 이후 대학정원의 급격한 증대(130% 입학)에 따라 이들이 졸업후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이들을 흡수할 만큼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의 과잉공급과 수요부족이 동시에 발생된 시기여서 노동시장의 전반적 악화, 특히 대졸인력 과잉공급에 따른 그들의 취업난 심화가 80년대 우리 노동시장의 특징이라 하겠다.

90년대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망은 결코 밝지 못할 것 같다. 이는 대졸인력, 특히 여자 고학력인력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급된 노동은 就業이거나 失業狀態인데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설령 취업이 되었다하더라도 일시취업 내지는 무급가족종사자(소위 잠재실업상태)이어서 계속 졸업과 더불어 공급되는 新規人力과 더불어 실업은 누적되고 이의 완전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그만큼 소요되는 것이다. 더구나 需要側面에서도 90년대에 불투명한 여건(경제성장의 둔화, 임금상승, 공장자동화 등)이 예상되어 누적된 비취업노동력을 흡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後述하겠지만 남자위주의 우리나라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여성의 失業問題解決은 전반적으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개선되어야 가능하므로 대졸여성의 취업문이 넓혀지거란 좀처럼 어려울 것 같다. 특히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경향이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에게는 더욱 어려운 노동시장 상황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大學院 卒業者の 취업상황은 1975~87년간 남자는 88.9%에서 74.3%로, 여자는 66.0%에서 59.2%로 취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수직 측면에서 다른 교육기관(高校, 大學) 출신자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가 전체의 실업상황에서 크게 고려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질적 측면에서는 고급인력이므로 이들에 대한 취업의 정책적 배려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은 異論의 여지가 없다.

1980년대 이후 우리 노동시장의 전반적 추세는 실업고나 초급전문대 출신자의 취업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반면 인문고나 4년제대학 출신자에게는 어려운 시기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업고 출신자의 신규취업은 상당히 좋아진 반면 4년제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상당히 저조한 상태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여건은 90년대에도 당분간 지속되리라 예측된다.

1987년 현재 신규 취업자의 현황을 산업별·직종별로 살펴보자(표 II-7과 표 II-8 참조), 여기서는 여성인력의 구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고등학교를 인문고와 실업고로 구분했을 때, 인문고 졸업자의 경우 43.2%가 제조업에 신규로 취업되었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1.7%, 금융·보험업 10.3%, 도·소매업 8.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업고 출신의 경우는 제조업에 37.7%,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20.2%, 도·소매업 7.8%의 순으로 나타나 결국 인문고나 실업고 출신의 산업별 분포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여고 출신의 신규노동력은 2차산업인 제조업에 38.7%가 진출하고 있고, 1차산업인 농림어업에서의 1.5%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3차산업에 취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금융·보험에 20.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에 20.5%로 이 두 부분에 41%나 취업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문대 및 4년제대학 출신의 신규여성인력은 제조업에 각각 10.8%, 12.1%에 불과하고,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각각 45.3%, 47.3%가 취업되고 있고, 특정산업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부문에 20.2%와 21.5%이고 보면 전문대나 4년제대학 출신 여성의 산업별 신규취업구성은 비슷하나 고등학교 출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제 산업별 구성을 살핍으로써 여성인력의 신규취업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표 II-8 참조). 인문고의 경우 생산직에 36.7%, 사무관련직에 20.5%인 데 반해 실업고의 경우는 그와 대조적으로 사무관련직에 54.7%, 생산직에 15.6%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 특이한 것은 실업고 출신의 경우 주로 사무관련직·판매직·생산직에 전체의 80.3%가 집중되어 있는 데 반해 인문고 출신은 상대적으로 전직종에 걸쳐 상당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와 4년제대학 출신 여성인력의 직업별 분포는 전문기술직에 각각 55.7%, 46.7%가 신규취업되고 있고, 사무관련직에 각각 16.3%, 22.1%가 취업되었다. 이를 제외한 기타 다른 직종에의 분포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인력의 직종별 신규취업 분포 역시 산업별에서와 마찬가지로 학력별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다.

〈표 II-7〉 여자 산업별·교육기관별 졸업자 취업현황(1987)

(단위:명, %)

	고 등 학 교					
	합 계		인 문 과		실 업 과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전 산 업	205,427 (100.0)	114,203 (100.0)	33,738 (100.0)	21,714 (100.0)	171,689 (100.0)	92,489 (100.0)
농림업및어업	13,047 (6.4)	1,739 (1.5)	3,154 (9.3)	600 (2.8)	9,893 (5.8)	1,139 (1.2)
광업	1,278 (0.6)	839 (0.7)	179 (0.5)	91 (0.4)	1,099 (0.6)	748 (0.8)
제조업	90,488 (44.0)	44,236 (38.7)	12,336 (36.6)	9,376 (43.2)	78,152 (45.5)	34,850 (37.7)
전기·가스·열수도사업	8,647 (4.2)	2,798 (2.5)	1,441 (4.3)	850 (3.9)	7,206 (4.2)	1,948 (2.1)
건설업	13,363 (6.5)	4,542 (4.0)	1,066 (3.2)	359 (1.7)	12,297 (7.2)	4,183 (4.5)
도·소매업	11,412 (5.6)	9,102 (8.0)	2,800 (8.3)	1,894 (8.7)	8,612 (5.0)	7,208 (7.8)
운수·창고및물신업	7,231 (3.5)	4,216 (3.7)	1,539 (4.5)	654 (3.0)	5,692 (3.3)	3,562 (3.9)
금융·보험업	22,677 (11.0)	23,376 (20.5)	2,758 (8.2)	2,245 (10.3)	19,919 (11.6)	16,367 (17.7)
사회및개인서비스	29,762 (14.5)	23,376 (20.5)	6,699 (19.9)	4,729 (21.7)	23,063 (13.4)	18,656 (20.2)
기타	7,522 (3.7)	4,753 (4.2)	1,766 (5.2)	925 (4.3)	5,756 (3.4)	3,828 (4.1)

	고 등 교 육 기 관					
	합 계		인 문 과		대 학 (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전 산 업	114,249 (100.0)	39,814 (100.0)	33,862 (100.0)	18,974 (100.0)	60,718 (100.0)	15,851 (100.0)
농림업및어업	2,456 (2.1)	378 (0.9)	885 (2.6)	162 (0.8)	1,290 (2.1)	206 (1.3)
광업	1,063 (0.9)	392 (0.5)	227 (0.7)	77 (0.4)	702 (1.2)	113 (0.7)
제조업	23,225 (20.3)	4,055 (10.2)	7,047 (20.8)	2,044 (10.8)	14,951 (24.6)	1,908 (12.1)
전기·가스·열수도사업	3,829 (3.3)	408 (1.0)	1,299 (3.6)	251 (1.3)	2,243 (3.7)	146 (0.9)
건설업	5,330 (4.7)	590 (1.5)	2,018 (6.0)	339 (1.8)	2,675 (4.4)	222 (1.4)
도·소매업	4,043 (3.5)	1,921 (4.8)	2,388 (7.1)	1,479 (7.8)	1,478 (2.4)	433 (2.7)
운수·창고및물신업	4,507 (3.9)	1,102 (2.9)	1,383 (4.1)	680 (3.6)	2,830 (4.7)	467 (2.9)
금융·보험업	10,368 (9.1)	3,117 (7.8)	2,344 (6.9)	1,525 (8.0)	6,702 (11.0)	1,450 (9.2)
사회및개인서비스	41,517 (36.3)	19,640 (49.3)	10,846 (32.0)	8,586 (45.3)	18,891 (31.1)	7,492 (47.3)
기타	17,920 (15.7)	8,381 (21.1)	5,515 (16.3)	3,831 (20.2)	8,956 (14.8)	3,414 (21.5)

주 : 여기에는 교육대학 대학원출신자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문교부, 『문교통계연보』, 1987.

〈표 II-8〉 여자 직업별 · 교육기관별 졸업자 취업현황(1987)

(단위:명, %)

	고 등 학 교					
	합 계		전문 고		실 업 고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전 계	205,427 (100.0)	114,283 (100.0)	31,738 (100.0)	21,714 (100.0)	171,689 (100.0)	92,489 (100.0)
전문 기술 직	27,587 (13.5)	3,934 (3.4)	1,753 (5.5)	989 (4.6)	25,844 (15.1)	2,945 (3.2)
행정 및 관리 직	6,424 (3.1)	4,953 (4.3)	1,097 (3.2)	705 (3.2)	5,327 (3.1)	4,248 (4.6)
사무 및 관련 직	62,813 (30.6)	55,026 (48.2)	5,467 (16.2)	4,469 (20.5)	57,346 (33.4)	50,577 (54.7)
판매 직	15,634 (7.6)	12,104 (10.6)	3,981 (11.8)	2,869 (13.0)	11,703 (6.8)	9,235 (10.0)
서비스 직	16,277 (7.9)	11,196 (9.8)	4,676 (13.9)	2,984 (12.7)	11,601 (6.7)	8,212 (8.9)
농림어업수업업	11,743 (5.7)	1,392 (1.2)	3,018 (8.9)	529 (2.4)	8,725 (5.1)	863 (0.9)
생산 직	57,795 (28.1)	22,410 (19.6)	11,300 (32.9)	7,975 (36.7)	46,695 (27.2)	14,435 (15.6)
군 인	1,423 (0.7)	4 (-)	225 (0.7)	1 (-)	1,198 (0.7)	3 (-)
기 타	5,721 (2.8)	3,184 (2.8)	2,471 (7.3)	1,233 (5.7)	3,250 (1.9)	1,951 (2.0)

	고 등 교 육 기 관					
	합 계		전문 대		대 학 (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전 계	114,243 (100.0)	38,944 (100.0)	33,862 (100.0)	18,974 (100.0)	60,718 (100.0)	15,861 (100.0)
전문 기술 직	55,968 (48.9)	22,352 (56.1)	17,419 (51.4)	10,574 (55.7)	24,710 (40.7)	7,430 (46.7)
행정 및 관리 직	7,267 (13.0)	1,572 (3.9)	1,622 (4.8)	641 (3.4)	4,421 (7.3)	840 (5.3)
사무 및 관련 직	19,739 (17.3)	6,805 (17.1)	4,600 (13.6)	3,102 (16.3)	13,437 (22.1)	3,505 (22.1)
판매 직	5,255 (4.6)	1,542 (3.9)	1,887 (5.6)	1,011 (5.3)	3,115 (5.1)	516 (3.3)
서비스 직	7,859 (6.9)	3,613 (9.0)	3,430 (10.1)	2,178 (11.5)	3,601 (5.9)	1,292 (8.1)
농림어업수업업	1,754 (1.5)	277 (0.7)	658 (1.9)	129 (0.7)	953 (1.6)	143 (0.9)
생산 직	3,840 (3.4)	511 (1.3)	1,783 (5.3)	278 (1.5)	1,820 (3.0)	220 (1.4)
군 인	5,344 (4.7)	37 (0.1)	687 (2.1)	3 (0.02)	4,159 (6.9)	30 (0.2)
기 타	7,283 (6.4)	3,135 (7.9)	1,776 (5.2)	1,058 (5.58)	4,502 (7.4)	1,905 (12.0)

주 : (표 II-7)과 동일.

자료 : (표 II-7)과 동일.

5. 職業訓練의 性別 現況

노동의 질적 향상은 앞에서 분석한 학교에서의 正規教育(formal educ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職業訓練(vocational training)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학교교육이 비교적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일반교육인 데 반하여 직업훈련은 상대적으로 좀더 구체적이고 단기적인 特殊教育이라 할 수 있다. 보다 단기에 현업에 적응할 수 있는 유능한 인력을 양성시키는 이 직업훈련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을 양성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소외되고 있는 인력에게까지 확대적용되도록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즉, 학력에서는 저학력소유자, 연령별로는 연소자나 연로자, 성별로는 여성근로자에게 적극 권장하고 또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기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그 실태를 파악코자 한다.

직업훈련체계는 우선 實施主體에 따라 公共職業訓練, 事業內職業訓練 및 認定職業訓練으로 구분한다. 공공직업훈련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이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사업내직업훈련은 기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는 훈련으로서 적응도가 높은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훈련이라 하겠다.

事業內職業訓練은 실시형태에 따라 단독훈련, 공동훈련, 및 위탁훈련으로 구분하는데 상용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체 중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및 수도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서비스업 등 6개부문은 직업훈련 및 그에 관련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事業內職業訓練義務化制度를 두고 있어 1987년 현재 전국에 143개소가 있다.

인정직업훈련은 위의 두 가지 제도하에서 실시가 곤란한 분야의 훈련을 社會福祉法人, 非營利法人 및 個人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하는 훈련이다.

지난 20여 년간의 기능인력 양성실적을 직업훈련 형태별로 살펴보자(표 II-9 참조). 이와 같은 직업훈련제도는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시작된 1967년부터 실시되어 왔는데, 실시초기인 이 기간동안 연평균 약 2만명이 양성되었다. 그러나 1987년 현재 6만 1천명이 양성되고 있어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개발 또는 노동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노력이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9〉 기능인력 양성실적

		(단위: 명, %)				
	계	2차 1967~71	3차 1972~76	4차 1977~81	5차 1982~86	6차 1987
기 능 사	1,254,783	99,388	314,133	581,147	279,155	61,040
	1,226,195	98,863	312,736	495,739	273,151	45,70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 공	381,012	36,317	81,294	130,117	121,844	22,240
	(31.1)	(36.7)	(26.0)	(24.2)	(44.3)	(48.7)
사업내	691,944	48,225	177,350	337,388	114,723	14,208
	(56.4)	(48.8)	(56.7)	(68.3)	(42.0)	(31.1)
인 정	153,239	14,321	54,082	38,234	37,334	8,258
	(12.5)	(14.5)	(17.3)	(7.7)	(13.7)	(18.1)
기 능 장	1,556	-	-	-	1,282	274
훈 령 교 사	3,000	445	1,397	5,408	1,686	64
관리감독자	4,607	-	-	-	3,036	1,571
고용근로자	13,425	-	-	-	-	13,425

주 : () 안의 수는 실시주체별 비중임.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국.

1967~87년간 技能士의 경우 총 1,226, 195명이 양성되었는데, 실시주체별 분포를 보면 공공·사업내 및 인정직업훈련이 각각 31.1%, 56.4%, 및 12.5%로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한 기능사 양성이 수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기능사의 종류나 직업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겠지만, 우선 양적으로 사업내직업훈련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그동안 직업훈련을 통한 인력양성이 비교적 기업 스스로에게 의지되어 왔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이는 정부나 공공단체가 직업훈련에 소극적이었음도 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구성의 변화를 경제계획 기간별로 살펴보자, 제4차계획 기간말인 1981년까지는 공공직업훈련의 비중이 제2차의 36.7%에서 24.2%로 줄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7년 현재 48.7%를 점하게 되었다. 반면 사업내직업훈련 인원은 제4차계획 기간말까지 수적으로나 비중으로나 크게 증가되더니 그 이후로 크게 감소하여 1987년 현재 31.1%에서 그치고 있다. 또한,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그 비중은 다른 두 훈련 실시주체에 비해 미약하지만 80년대에 와서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기능인력 중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기능사 이외에도 기능장, 관리감독자 등의 자격을 부여하여 또다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를 제5차계획 기간부터 실시하여 다양화되고 있다.

이제 기능사 양성주체별 분포를 성별로 구분하여 좀더 자세히 분석하자(표 II-10 참조). 지난 1978~87년간 양성된 총 기능사는 731,569명으로 이 중 남자가 570,955명으로 78.0%이고, 여자가 160,614명인 22.0%이었다. 1978~82년 사이에 성별분포는 남자 75.4%, 여자 24.6%이었고, 1983년 이후는 여성비율이 다소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20%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성별 기능사 양성실적을 養成實施主體別로 살펴보자, 우선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전기간에 걸쳐 거의 변화없이 약 4%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두 양성주체(사업내, 인정훈련)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훈련관리공단이 훈련직종 선정에 있어서 비교적 남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국한하여 지난 10여 년간 실시해 온 것에 큰 원인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뒤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직접적 정책의 대상인 공공직업훈련의 직종의 다양화, 특히 지금까지 남성에게 적합한 직종에 국한된 훈련에서 탈피하고 여성에게도 비교적

〈표 II-10〉 양성주체별 · 성별 기능사 양성실적

(단위 : 명, %)

		계	1978~82	1983	1984	1985	1986	1987
제	계	731,569 (100.0)	475,632	52,142	51,846	55,385	50,838	45,706
	남자	570,955 (78.0)	358,830 (75.4)	44,078 (84.5)	43,461 (83.8)	46,328 (83.6)	41,365 (81.3)	36,693 (80.7)
	여자	160,614 (22.0)	116,802 (24.6)	8,064 (15.5)	8,385 (16.2)	9,057 (16.4)	9,493 (18.7)	8,813 (19.3)
공	소계	248,523 (100.0)	133,324	24,711	22,803	22,583	22,862	22,240
	남자	237,343 (95.5)	127,035 (95.3)	23,728 (96.0)	21,751 (95.4)	21,659 (96.9)	21,857 (96.4)	21,313 (95.8)
	여자	11,180 (4.5)	6,289 (4.7)	983 (4.0)	1,052 (4.6)	924 (4.1)	1,005 (4.4)	927 (4.2)
사	소계	407,630 (100.0)	304,780	20,950	20,764	23,876	19,042	14,208
	남자	384,265 (70.7)	289,729 (67.9)	17,704 (84.5)	17,577 (84.7)	19,488 (81.6)	14,362 (75.4)	9,405 (66.2)
	여자	119,365 (29.3)	99,451 (32.1)	3,256 (15.5)	3,187 (15.3)	4,388 (18.4)	4,680 (24.6)	4,803 (33.8)
인	소계	75,416 (100.0)	33,528	6,471	8,279	8,925	8,954	9,258
	남자	45,347 (60.1)	22,066 (65.8)	2,646 (40.9)	4,133 (49.9)	5,182 (58.0)	5,146 (57.5)	6,175 (66.7)
	여자	30,069 (39.9)	11,462 (34.2)	3,825 (59.1)	4,146 (50.1)	3,743 (42.0)	3,808 (42.5)	3,083 (33.3)

주 : () 안은 성별 구성비율.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국.

적합한 직종의 과감한 도입으로 供給女性人力의 質的 向上을 가져와 노동시장 혹은 기업내에서 女性雇傭擴大 및 임금의 性的 差異를 줄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비교적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단기에 양성하는 事業內職業訓練의 경우 1978~87년간 여성의 비율이 약 30% 수준이었다. 연도별 변화도 1983년 15.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87년에는 33.8%에 달하고 있다. 반면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비교적 여성비율이 높아 평균 40% 수준이지만, 이의 연도별 변화는 1983년 59.1%에서 서서히 감소하여 1987년에는 33.3%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공공직업훈련이나 인정직업훈련에서는 여성훈련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정책의 간접적 개입의 범주에 있는 기업 자체내의 사업내직업훈련제도하에서의 여성훈련자는 증가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직업훈련은 훈련자의 성별분포를 고려한 정책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즉, 필요한 인력양성에 민감한 기업 자체내에서 여성훈련자의 비중이 증가하듯이 공공 및 인정직업훈련에서도 여성의 비율이 증가되도록 훈련직종의 선정방법 개선과 그로 인한 여성에게의 훈련기회 확대 등 여성인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결국 여성에게도 비교적 적합한 훈련직종의 도입으로 고급여성인력을 양성 공급함은 여성의 실업을 줄이고 임금의 개선에 기여하리라 본다.

〈표 II-11〉에 의하여 여성의 공공직업훈련을 훈련기관별·직종별로 살펴보자. 1988년 3월 현재 총 729명의 훈련생 중 직종별로는 전자 181명(24.8%), 미용 168명(23.1%)과 양장 95명, 제직 57명 등으로 나타나 전자와 미용이 전체의 1/2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직종들은 남성위주의 타직종(기계가공, 전기, 용접 등)에 비해 비교적 훈련기간이 짧고, 따라서賃金이나 기타 근로조건에서 〈표 II-11〉에 나타난 타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들로 이들이 취업후 기업체에서 低賃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면키 힘든 직종들이다. 정부기관의 직업훈련은 주로 在所者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직업훈련은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데 반해 韓國職業訓練管理工團에서는 단계적인 교육을 통해 기능사 및 기능장을 양성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 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에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선정 및 개발을 통한 여성 직업훈련교육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겠다. 女性 교육훈련 직종에 있어서 전자(181명)나 제직(57명), 기계자수(26명) 등 비

〈표 II-11〉 여성의 공공직업훈련 현황(1988. 3 현재)

		(단위 : 명)																	
		계	기계 가공	정상품 용기계	패 용	천 집	전 기	전 자	용접 기계	목 재	양 장	합 계	목 공· 예	도자기 공예	기계 자수	수 자 수	보석 가공	미 용	기 타
총 계		729	8	26	1	1	5	181	10	57	95	8	5	12	44	38	5	168	65
훈련 기관	소 계	374	8	26	1	1	5	181		57	11	8	5	12	26	12	5		16
	중점직수	42	8	26	1		3	2											2
	대인	57						2					5	12	26	12			
	청년	8									8								8
	대인	19						11											
	청년	32						32											
	대인	5						5											
	청년	9					1										5		3
	대인	37					1		36										
	청년	150				1		93		57									
대인	3			1														2	
청년	1																	1	
소 계	80									20								45	15
정부 기관	법무부 제 3공공	5																	5
	제 4공공	5																	5
	제 6공공	5																	5
	제 7공공	5																	5
	제 15공공	5																	5
	제 31공공	5																	5
	소 계	50									20								15
소 계	275							10		64				18	26			123	34
서울종합공공	164								41						26			72	25
서울시부녀복지관	111						10		23				18				51	9	

자료: 노동부 직업훈련국.

교적 저학력의 年少女性에 치우치지 말고 기계, 용접, 전기 등 남성 전유직종으로 취급되어 온 직종에도 여성의 적극적 참여 뿐만 아니라 선발에서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함은 물론 적합한 직종의 선정 · 도입을 꾸준히 연구해야 하겠다.

1988년 3월 현재 여성의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총 38개로 13개 직종에 1,857명으로 집계되고 있다(표 II-12 참조). 社別로는 삼화, 한일합섬, 삼성전자 등으로 이는 훈련인원이 많은 순인데 이를 직종별로 집약하면 <표 II-13> 과 같다. 방직기, 제직기 및 조정 등이 683명에 전체의 36.8%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전자기기조립, 신발류제조, 봉제 등의 순이다. 이들 4개 직종이 전체의 80.6%이고 보면 여성인력을 위한 사업내직업훈련도 역시 단순직에 국한되고 있다. 즉, 직종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종도 연소여성들이 주로 취업되어 있는 섬유, 봉제 및 전자산업에 편중되어 있어 단기에 필요인력을 양성하여 투입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공공직업훈련이나 사업내직업훈련을 통해 실시 곤란한 분야의 훈련을 실시하는 인정직업훈련의 경우 1988년 3월 현재 1,225명이 훈련중이다(표 II-14 참조). 이러한 훈련을 실시하는 훈련원은 총 79개소로 이 중 여성을 훈련하는 기관은 31개소이다. <표 II-14> 에 나타난 훈련직종을 좀더 요약하면(표 II-15 참조), 이 · 미용 기술훈련인원이 전체의 36.2%로 가장 많고, 정보처리 등 컴퓨터관련업종에 29.4%, 타자 14.9% 등의 순이다. 정보처리, 키판치, 프로그래밍 등 컴퓨터계통의 직종에서 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 직종은 특히 섬세함을 요하고 있어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의 하나로 판단되므로, 공공훈련의 직종으로 도입하는 등 좀더 심층적 연구를 통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겠다. 특히 그동안 여성이 종사하는 직종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근무조건(임금, 작업환경 등)이 열악하고 이의 개선이 시대적으로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 계통에 고도의 훈련을 요하는 직종을 선정하여 여성중심의 人力養成에 체계적인 정책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하면 기술자격을 技術系 · 機能系 및 서비스계로 구분한다. 기술계 자격은 기술사 · 기사1급 · 기사2급으로, 기능계 자격은 기능장 · 기능사1급 · 기능사2급으로, 서비스계 자격은 長 · 1급 · 2급 · 補로 세분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자격시험의 수험자, 합격자 및 합격률을 성별로 살펴보자(표 II-16 참조).

1987년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 응시자는 3,052,840명이었는데 이 중 여자는 4.0%에 지나지 않는 123,166명이었다. 이를 계열별로 보더라도 기술계의 여성 수검응시자는 8.4%, 기능계가 5.5%, 서비스계가 3.2%에 불과하여 여성의 응시율이 아주 저조함을

〈표 II-12〉 여성의 사업내 직업훈련 현황(1988. 3 현재)

(단위 : 명)

훈련원명	훈련직종	훈련인원	훈련원명	훈련직종	훈련인원
해태제과(주)	제과	58	삼일방직(주)	방직기조정	26
(주)경방	방직기보전	58	영남방직(주)	방직기조정	36
방림방직(주)	방직기보전	50	삼설광학(주)	저항전기용접	7
백산전자(주)	전자기기조립	57	성화화성(주)	신발류제조	59
(주)신영	봉제	36	해왕물산(주)	제직기조정	36
삼성물산(주)	봉제	60	(주)금성사	감자기기조립	28
(주)대화	신발류제조	25	대우전자(주)	전자기기조립	57
(주)삼화	신발류제조	122	운성방직(주)	방직기조정	19
(주)금성사	음향영상기기	2	이화섬유(주)	제직기조정	55
(주)대우	일반봉제	93	삼익악기(주)	피아노조율	29
(주)진영	신발류제조	65	금성자기(주)	전자기기조립	50
한일합성(주)	방직기보전	108	(주)금성사	전자기기조립	23
한국중공업(주)	기계제도	20	삼성전자(주)	전자기기조립	90
대광산업(주)	신발류제조	30	금성통신(주)	전자기기조립	36
한국동경전자(주)	전자기기조립	89	동양철밀공업(주)	전자기기조립	6
대창기업(주)	방직기조정	61	전방(주)	방직기보전	72
삼성전자(주)	전자기기조립	72	일신방직(주)	방직기보전	42
동양나일론(주)	발사	60	대한방직(주)	방직기조정	43
대한방직(주)	방직기조정	46	금희방직(주)	제직기조정	31
			계 38개소		1,857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국.

〈표 II-13〉 여성의 사업내훈련 직종별 분포(1988. 3 현재)

	업체수	훈련인원	비중(%)
방직기·제직기조정	14	683	36.8
전자기기조립	10	508	27.4
신발류제조	5	301	16.2
봉 제	3	189	10.2
제 과	1	58	3.1
음향영상기기	1	2	0.1
기계제도	1	20	1.1
발 사	1	60	3.2
저항전기용접	1	7	0.4
피아노조율	1	29	1.6
합 계	38	1,857	100.0

자료 : 노동부 직업훈련국.

<표 II-14> 여성의 인정직업훈련 현황(1988. 3 현재)

(단위: 명)

훈련원명	훈련직종	훈련인원	훈련원명	훈련직종	훈련인원
삼육세활원	양장	5	강동	도배	12
	금은세공	2	한일	일반봉제	13
한국능타자	한국타자	61	대한열관리	고압가스기계	1
	영문타자	62	국제제과	제과	5
한성종합	전자제산기조작	11	덕원미용	제빵	3
	인쇄통신	14	한강컴퓨터	미용	17
	한국타자	30	서울미용	프로그래밍	4
	영문타자	30	한국조리사	미용	28
서울전자	프로그래밍	28	경남조리	한식	7
	키원치	29	출산미용	한식	6
서울전자(분원)	정보처리	13	서울 이·미용	알식	3
	전자제산기정비	34		미용	28
한미	미용	35		미용	3
	정보처리	30		미용	31
한국인력개발	미용	20	대원	프로그래밍	12
한국식생활조리기능	한식	28	한림	전자기기조립	1
	양식	18	광주미용	미용	36
한국전산	정보처리	172	제일미용	미용	157
한국의류시험검사소	일반봉제	18	노라노	미용	21
한국수출산업공단	전자기기조립	5	이리고압가스	고압가스기계	2
	일반봉제	72	군산이화미용	미용	11
광릉전산	정보처리	23	목포미용	미용	27
	전자제산기정비	2	한국미용	미용	30
	전자기기	1			
	데이터통신설비	1			
	회계관리	23	계		1,225

자료: 노동부 직업훈련국.

<표 II-15> 여성의 인정직업훈련 직종별 분포(1988. 3 현재)

	훈련인원	비중(%)
이·미용	444	36.2
정보처리, 키원치, 프로그래밍	360	29.4
영·한글타자	183	14.9
일반봉제	103	8.4
한식·양식	62	5.1
회계관리	23	1.9
제과·제빵	8	0.7
기 타	42	3.4
합 계	1,225	100.0

자료: 노동부 직업훈련국.

<표 II-16> 성별 국가기술자격 취득현황(1987)

(단위: 명, %)

		합 계	기술계	기능계	서비스계
수험자	총 수	3,052,840	200,123	685,757	2,166,960
	남 자	2,929,674	183,327	647,870	2,098,477
	여 자	123,166	16,796	37,887	68,483
	(여성비율)	(4.0)	(8.4)	(5.5)	(3.2)
합격자	총 수	660,726	27,291	157,874	475,561
	남 자	634,839	25,172	148,919	460,748
	여 자	25,887	2,119	8,955	14,813
	(여성비율)	(3.9)	(7.8)	(5.7)	(3.1)
합격률	총 수	(21.6)	(13.6)	(23.0)	(21.9)
	남 자	(21.7)	(13.7)	(22.9)	(22.0)
	여 자	(21.0)	(12.6)	(23.6)	(21.6)

자료: 노동부 직업훈련국.

엿볼 수 있다. 합격률을 계열별로 보면 기술계 13.6%, 기능계 23.0%, 서비스계 21.9%인데, 이의 性別差異는 기술계에서 남성이 1%포인트 높은 것 이외에는 별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의 여성이 적은 것은 이들에게 훈련의 기회가 적어 시험응시자의 수가 적어서이지 합격률이 저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결국 여성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도입, 모든 직종에 여성참여의식 고취 등)하면 남성과 대등한 기술·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합격자의 남녀구성이 수험자의 남녀구성과 거의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평균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자는 국가인정 기술자격취득자 660,726명 중 3.9%인 25,887명에 불과하다. 이의 몇 가지 원인을 찾아보면, 기업내에서 여성인력은 결혼 후 퇴직한다는 오랜 관행이 기업으로 하여금 여성의 기술축적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어서 직업훈련의 기회에 있어서 남녀 차별을 두어 제공한다는 것과 앞에서 보았듯이 훈련대상직종이 남성위주로 편중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성 스스로가 훈련 및 자격취득에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겠다. 앞으로 전개될 우리경제는 산업구조의 세분화와 산업기술의 고도화 및 그에 따른 직종의 세분화를 경험하게 되어 고급인력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전문화된 인력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응키 위해서는 私企業들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특히 요즈음 같은 생산직에의 인력난을 극복키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 就業訓練 등을 통한 필요한 인력양성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은 성격상 단기적 대응일 수밖에 없어 보다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대응은 정부등 공공단체가 할 수밖에 없다. 즉,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特殊職種이라든지, 민간기업이 등한시하는 여성인력 혹은 노년층의 인력 등 소위 副次的 勞動力의 취업기회 확대 및 질적 향상에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최근 우리 경제는 官主導型에서 民間主導型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언급한 바있는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도 그러한 방향으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방향의 전환은 부녀자, 중고령자, 연소자, 저학력자 등 주로 단순직근로자에게 고용의 불안정, 기술축적을 위한 기회결여 등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때에 기업의 기술인력 수요에 따른 인력공급도 중요하지만 향후 전개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증가나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공급인력의 질적 변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한 직업훈련정책의 전환모색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요에 대비한 인력의 양성·공급정책으로부터 공급인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수요의 창출정책이 여성인력 및 고령인력에게 적용되어야겠다는 것이다.

Ⅲ. 女性人力의 勞動供給行態 分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난 20여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1970년 38.5%에 불과하던 것이 1988년에는 45.0%로 6.5%포인트 증가한 반면 남자의 경우는 같은 기간에 75.1%에서 72.9%로 오히려 2.2%포인트 감소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는 남자의 감소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컸다고 하겠다.

1981년 이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표 Ⅲ-1 참조), 15~24세 연령층에서는 남녀 모두 감소한 반면 5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남녀 모두 증가하였다. 그런데, 主勞動力이라 할 수 있는 25~54세 연령층(prime age group)에서는 남자가 1981년 95.4%에서 1988년 93.6%로 1.8%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47.8%에서 52.4%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주노동력의 연령층에서 상호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분석에 흥미를 끌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연령층 여성의 대부분은 기혼여성이기 때문에 이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속성변화는 물론 가계의 상황(가구원, 자녀수, 남편의 소득 등)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표 Ⅲ-1> 성별 ·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계		15~24세		25~54세		55세이상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1981	75.8	42.3	43.9	41.3	95.4	47.8	58.7	26.8
1982	75.0	43.4	43.0	41.9	95.0	49.2	56.7	27.8
1983	73.7	42.8	38.3	41.2	94.3	48.8	54.6	26.9
1984	72.1	40.7	34.8	37.9	93.4	46.7	54.1	26.0
1985	72.3	41.9	33.0	38.0	93.4	48.4	55.3	27.4
1986	72.1	43.1	31.7	38.9	93.4	49.7	55.1	28.9
1987	72.5	45.0	30.7	39.7	93.1	52.0	57.2	31.0
1988	72.9	45.0	28.3	39.0	93.6	52.4	58.9	31.0

자료 :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호.

<표 Ⅲ-2>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를 결혼상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자.

결혼상태는 미혼, 유배우와 이혼·사별 등을 기타로 묶어서 표에 나타냈다. 우선 생산연령인구로 정의되는 15세이상 인구는 1985~88년 기간 동안 미혼의 경우에 연평균 1.29%씩 증가한 반면 有配偶者의 수는 연평균 0.96%씩 증가하였다. 반면, 경제활동인구에 있어서는 오히려 유배우자가 2.36%로 미혼 1.41%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유배우자들의 경제활동참가가 최근 크게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가율면에서도 같은 기간 미혼자의 경우(44.7%~45.1%)보다는 유배우자의 경우(42.5%~46.9%)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상태에서 미혼자와 유배우자의 경제활동행태의 차이를 하나 지적하고 싶다. 미혼의 경우는 1983년 이후로 실업률이 5.3~7.1%의 수준임에 반하여 유배우자의 경우는 불과 0.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여성인력이 비교적 남성보다 실업상태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非經濟活動人口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여성 중에서도 미혼보다는 기혼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배우자가 미혼자보다 실업률이 낮다고 해서 유배우자의 취업이 노동시장에서 미혼자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다.

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분포를 구분하여 살펴보자(표 Ⅲ-3 참조). 80년대에 전체적인 추세는 賃金勤勞者(被傭者)의 비중은 증가하고, 無給家族從事者(unpaid family workers)의 비중은 감소하며, 自營業主(self-employed)의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즉, 임금근로자 혹은 피용자의 비중은 1981년 47.1%에서 1988년 57.0%로 9.9%포인트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19.1%에서 12.8%로 6.3%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여 보자. 남녀 모두 변화추세는 동일한 방향이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 남자와 대조적인 것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남자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남자는 3~7%의 수준인데 반해 여자는 27~38%의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여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연도별 변화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다. 1981~88년 기간 동안 남자는 7.4%에서 3.1%로 4.3%포인트 감소한 반면 여자는 38.2%에서 27.3%로 10.9%포인트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의 양상과 더불어 아직도 여성취업자의 1/3수준이 무급가족종사자로 가구단위에서 경영하는 농장

<표 III-2> 여성인력의 결혼상태별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자

(단위 : 천명, %)

	1983 ¹⁾	1984 ²⁾	1985	1986	1987	1988	1985~88 연평균증가율
15세이상인구	14,023	14,366	14,258	14,610	14,979	15,308	1.03
미혼	3,663	3,850	3,543	3,688	3,776	3,873	1.29
유배우	8,211	8,341	8,515	8,668	8,900	9,098	0.96
기타	2,151	2,177	2,200	2,254	2,304	2,337	0.88
경제활동인구 ³⁾	5,830(41.6)	5,668(39.5)	5,975(41.9)	6,296(43.1)	6,735(45.0)	6,891(45.0)	2.07
미혼	1,575(43.0)	1,525(39.6)	1,584(44.7)	1,668(45.2)	1,732(45.9)	1,746(45.1)	1.41
유배우	3,458(42.6)	3,402(40.8)	3,621(42.5)	3,807(43.9)	4,131(46.4)	4,263(45.9)	2.36
기타	757(13.2)	740(13.6)	770(13.0)	823(13.5)	873(13.7)	882(13.7)	1.97
취업자 ³⁾	5,703(2.2)	5,544(2.2)	5,833(2.4)	6,165(2.1)	6,613(1.8)	6,771(1.7)	2.16
미혼	1,473(6.5)	1,426(6.5)	1,471(7.1)	1,562(6.4)	1,633(5.7)	1,654(5.3)	1.69
유배우	3,479(9.5)	3,383(9.6)	3,600(10.6)	3,789(9.5)	4,115(10.4)	4,242(10.5)	2.38
기타	750(0.9)	734(0.8)	764(0.8)	815(1.0)	865(0.9)	875(0.8)	1.96

주 : 1) 해당연도는 14세이상 인구임.

2) () 안은 경제활동참가율.

3) () 안은 실업률.

자료 : 통계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표 III-3>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전국)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총 수	14,023	14,379	14,505	14,429	14,970	15,505	16,354	16,870
자영업주	(33.8)	(34.1)	(33.8)	(31.7)	(31.3)	(31.4)	(30.5)	(30.2)
무급가족종사자	(19.1)	(18.3)	(16.8)	(15.4)	(14.6)	(14.2)	(13.3)	(12.8)
임금근로자	(47.1)	(47.6)	(49.4)	(52.9)	(54.1)	(54.4)	(56.2)	(57.0)
남 자	8,679	8,757	8,819	8,894	9,137	9,339	9,741	10,099
자영업주	(40.5)	(40.8)	(40.3)	(38.2)	(37.6)	(37.1)	(36.0)	(36.0)
무급가족종사자	(7.4)	(6.7)	(5.8)	(4.7)	(4.4)	(4.3)	(3.9)	(3.1)
임금근로자	(52.1)	(52.5)	(53.8)	(57.1)	(58.0)	(58.6)	(60.3)	(60.8)
여 자	5,345	5,622	5,686	5,535	5,833	6,165	6,613	6,771
자영업주	(22.9)	(23.7)	(23.6)	(21.4)	(21.3)	(22.8)	(22.5)	(21.5)
무급가족종사자	(38.2)	(36.4)	(33.9)	(32.5)	(30.6)	(29.2)	(27.4)	(27.3)
임금근로자	(39.0)	(40.0)	(42.6)	(46.1)	(48.2)	(48.1)	(50.2)	(51.2)

주 : () 안은 %.

자료 : 통계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이나 소규모 사업체에서 수입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부차적 노동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 1981~88년 기간동안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각각 4.5%포인트, 4.3%포인트 감소한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8.7%포인트 증가하였다. 한편 여자의 경우 자영업주의 비중이 전기간 거의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은 반면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39.0%→51.2%)하고,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감소(38.2%→27.3%)하여 결국 종사상지위형태 중 무급가족종사자와 임금근로자로서의 취업자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본 연구에 임하고자 한다.

농가를 제외한 비농가의 경우에 종사상지위별 취업자의 현황을 <표 III-4>에 따라 살펴보자. 우선 자영업주의 비중은 남자의 경우 26~30% 정도이고, 여자는 21~22% 수준이어서 <표 III-3>에 전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남자는 약 10%포인트 적은 반면 여자는 거의 비슷한 비중이었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은 비농가에서 남자는 불과 1.8%~1.2%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여자의 경우도 전국의 경우보다는 훨씬 비중이 떨어져 17.8%~15.5% 사이의 수준이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난 70~80년대에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기혼여성의 참가가 크게 두드러지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경제활동참가자를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때 여성의 경우 남자에 비해 실업률이 유난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여성(부노동력)의 경우 남성(주노동력)보다 노동시장에서 失業狀態로 장기간 머무르지 않거나 아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게 되는 성향이 높음을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취업자를 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보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남자의 경우 극히 미미한 반면 여자의 경우는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에게 있어서 자영업주의 비중은 80년대 전기간에 걸쳐서 변화 정도가 거의 미미함에 비추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변화는 주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상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상태 즉, 경제활동인구로서의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서의 세 가지 상태의 변화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쳐 왔는지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인력의 공급구조를

<표 III-4> 종사상지위별 취업자(비농가)

(단위: 천명, %)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총 수	8,871	9,579	10,011	10,454	11,105	11,706	12,630	13,217
자영업주	(26.3)	(27.6)	(26.7)	(24.9)	(25.1)	(25.5)	(24.8)	(24.5)
무급가족종사자	(7.4)	(8.6)	(8.3)	(7.1)	(7.1)	(7.1)	(6.9)	(6.7)
피고용자	(66.3)	(63.8)	(65.2)	(67.9)	(67.9)	(67.4)	(68.3)	(68.8)
남 자	5,763	6,076	6,288	6,623	6,977	7,255	7,701	8,089
자영업주	(28.1)	(29.9)	(29.0)	(26.7)	(27.3)	(27.2)	(26.5)	(26.3)
무급가족종사자	(1.8)	(1.9)	(1.8)	(1.3)	(1.3)	(1.5)	(1.3)	(1.2)
피고용자	(70.1)	(68.2)	(69.2)	(72.0)	(71.4)	(71.4)	(72.2)	(72.5)
여 자	3,107	3,502	3,722	3,830	4,128	4,451	4,930	5,128
자영업주	(22.9)	(21.4)	(22.9)	(21.8)	(21.4)	(22.7)	(22.2)	(21.6)
무급가족종사자	(17.8)	(20.3)	(18.7)	(17.1)	(16.7)	(16.2)	(15.5)	(15.5)
피고용자	(59.3)	(58.3)	(58.4)	(61.0)	(61.9)	(61.1)	(62.3)	(62.9)

자료: 경제기획원,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

전망하고자 한다.

2. 女性の 經濟活動參加 模型

勞働供給으로서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은 개인의 환경제적 상태인 경제활동(취업이건 실업이건) 및 비경제활동의 결정에 따른 원인분석을 주로 하는 연구로서, 분석대상이 개인의 참가여부인 경우(micro-level Analysis)와 어떤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참가율인 경우(aggregate-level analysis)로

분류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전자의 분석을 위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을 하고자 한다. 어떤 여성의 노동공급 결정은 개인 혹은 가구의 인구학적 혹은 경제적 특성(여성 자신의 임금, 가구소득, 교육정도, 경력, 연령, 자녀수 등)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經濟的 理論은 Mincer(1962)와 Cain(1966)에서 시작되어 Cogan(1975, 1978), Gronau(1973), Heckman(1974, 1980)에 이르러 정립되었다.

이론적 모형의 정립과 더불어 통계적 분석기법도 상당히 발전되었지만, 특히 여성이 분석대상인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모형설정 및 계량경제적 분석방법에 한층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남자의 경우는 경제활동의 참가여부에 따라 '참가'면 1, '비참가'면 0으로 취급하여 二分變數(dichotomous variable)를 從屬變數로 Probit 혹은 로짓분석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여자의 경우에는 다소 이것에서 발전된 三分變數(trichotomous variable)의 분석모형을 설정한다(Hill, 1983, 1989 참조).

여자의 경우 경제활동에 참가하여 취업하고 있는 인구 중 앞에서 보았듯이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1981년 38.2%, 1988년 27.3%이고,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각년도에 각각 39.0%, 50.2%이어서 양자의 비중이 상당히 크며, 또한 두 경제상태의 성질에 선택에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을 동일한 경제상태로 취급하여 분석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임금근로자(피고용자)보다는 근무일수나 근무시간에 신축성 혹은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등 가사를 병행할 수 있다는 전통적 여성의 역할에도 대응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에 두 경제활동상태에 차이가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 남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1988년 현재 불과 3.1%에 지나지 않고, 여자의 경우라도 미국등 서방선진국에서는 이의 비중이 극히 미미하여(5% 미만) 이들 분석에 이분변수 혹은 산분변수의 모형을 택하여 분석한 결과에 큰 차이가 없지만, 한국, 일본 등 동양권의 국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은 三分變數의 模型이 일단 선호되고 있다.¹⁾

이 모형에서 개인은 3가지 상호배반적인 경제적 상태 즉, 賃金勤勞者(employee : e), 무급가족종사자(unpaid family worker : f)와 非經濟活動參加者(nonparticipant : n)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자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합리적인 행동의 가정을 한다. 즉 어떤 勞動供給者 i가 어느 經濟活動狀態 j를 선택했다면(j=e, f, n), 그는 그가 획득 가능한 최대효용 (V_{ji})를 얻고 있다는 것이며, 이때의 間接效用函數 V_{ji}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V_{ji} = S_{ji} + U_{ji} \quad (3-1)$$

여기서 S_{ji} 는 觀測可能變數의 函數이며 非確率要因(nonstochastic components)이고, U_{ji} 는 관측불능변수의 함수이며 確率要因(stochastic components)이다. 이상의 두 요인 S_{ji} 와 U_{ji} 는 서로 독립이며 Weibull 分布함을 가정한다(Hill(1989), Maddala(1983) 참조). 그러면, 만약 i번째 개인이 j번째 경제활동상태를 택하게 되는 확률을

$$P_{ji} = P_r[V_{ji} > V_{ki} \text{ for } k \neq j, k=e, f, n] \quad (3-2)$$

로 표시될 수 있고, 이 때 式(3-2)를 式(3-1)에 대입하면

$$P_{ji} = P_r[S_{ji} - S_{ki} > U_{ki} - U_{ji} \text{ for } k \neq j, k=e, f, n] \quad (3-3)$$

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 선택모형(choice model)은 확률요인 $U_{ki} - U_{ji}$ 가 로짓分布(logistic distribution)하여 이를 多項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으로 분류하고 있다(McFadden(1974), Dominichi and McFadden(1975) 참조).

간접효용함수의 비확률부분이며 관측가능변수로 설명되는 S_{ji} 는 특정 경제활동참가 j를 결정해 주는 獨立變數(說明變數) 벡터 X_{ji} 의 함수이므로

$$S_{ji} = \beta_j' X_{ji} \quad (3-4)$$

로 나타낼 수 있고, 이는 또한 實證分析을 위한 確率 P_{ji} 를 구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용된다.

$$P_{ji} = \frac{\exp(\beta_j' X_i)}{\exp(\beta_e' X_i) + \exp(\beta_f' X_i) + \exp(\beta_n' X_i)} \quad (j=e, f, n) \dots\dots\dots (3-5)$$

물론 여기서 X_i 는 설명변수 벡터, β_i 는 파라메타 벡터, $\exp$ 는 exponential(지수)를 의미한다. 즉, P_{ji} 는 어떤 개인 i 가 $j(j=e, f, n)$ 라는 경제활동상태를 본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행동하에서 선택할

확률이며, $\sum_j P_{ji} = 1 \quad (j=e, f, n)$ 이어야 한다.

式(3-5)의 양변에 自然代數를 취하여 경제상태 n 를 중심으로 그 차이를 구하면 실제로 다항로짓분석을 하여 係數를 추정하게 되는 式(3-6)을 구하게 된다.

$$\ln\left(\frac{P_{ji}}{P_{ni}}\right) = \alpha_j' X_i + \epsilon_{ij}, \quad j=e, f \quad \dots\dots\dots (3-6)$$

$$i=1, 2, \dots, n$$

이 때 추정된 $\hat{\alpha}_j$ 는 결국 $\widehat{\beta_j - \beta_n}$ 의 추정치로서 해석된다.

주석 1) 만약이 두 경제적 상태(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에 차이가 없다면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한 二分變數의 單純選擇模型(Probit, Logit 등)에서의 결과와 일치함을 Hill(1983)에서 보여주고 있다.

3. 利用資料 및 變數選定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상태(취업, 실업 및 비경제활동)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고용구조특별조사」로서 이 두 자료는 家口單位의 조사이다. 전자는 1963년 이후 실시된 月別調查인 반면 후자는 1983년 이후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취득가능한 가장 최근의 자료는 1986년 제2차 조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주로 이용했다. 고용구조특별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보다 標本數가 훨씬 많고, 調查項目數도 확대되어 있기에 월별조사에 비해 경제활동상태변화 연구에 신속성은 뒤지지만 신빙성을 더해준다는 판단하에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를 이용하였다.¹⁾ 또한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상 개별단위 분석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자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보고서』에 집계된 자료는 副次的 資料로만 이용했을 뿐 주로 조사테이프에 의존하여 약 2,500가구에 해당하는 가구수를 任意抽出하여 분석하였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활동상태를 연구하는 데 크게 두 가지 제약사항을 갖는다. 첫째는 임금 혹은 소득에 관한 정보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임금 혹은 근로소득이 개인의 경제활동참가 여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理論的으로나 實證的으로 입증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물론이고 여기에 이용되고 있는 「고용구조특별조사」도 임금에 관한 자료는 層別調查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5만원미만, 5~10만, 10~20만, 20~30만, 30~50만, 50~70만, 70~100만, 100만원 이상으로 월별 총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을 8개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層化된 變數를 연속변수로 추정하는 방법의

모색이 첫 번째 문제이다. 둘째는 본 조사에 가구의 취학전 아동수 혹은 자녀수가 조사항목에서 빠져 있다. 이 변수 역시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특히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연구가 많이 있음에도 이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본 조사에서는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상의 제약된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혹은 최소한의 오차를 감수하며 가장 접근된 代理變數를 얻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법을 이용하였다. 우선 소득자료가 층화된 변수(categorical variable)이므로 이를 본 연구의 回歸分析에 이용할 수 있는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바꾸는 작업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취득가능한 소득자료는 1~8까지의 저소득에서 고소득으로 層化되었다. 어떤 개인 i 가 특정소득계층 j 에 속할 가능성을 P_{ji} 로 표시하면 이 가능성(possibility)은 그의 연령, 경력, 교육년수 및 주거지역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가능성 P_{ji} 는 취업자 자신의 종사상지위(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아, 성별·종사상지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²⁾

$$\ln\left(\frac{P_{ji}}{P_{ki}}\right) = \gamma_j' X_i + \epsilon_{ij} \quad j=1, 2, \dots, 8 \quad \dots\dots\dots (3-7)$$

$$i=1, 2, \dots, n \quad k \neq j$$

이는 앞에서의 式(3-6)과 같으며, 단지 소득계층이 8개이므로 $j=1, 2, \dots, 8$ 의 계층중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될 것이므로 $\sum_{j=1}^8 P_{ji} = 1$ 의 성립으로 실제 추정과정에서는 7개의 방정식만이 추정된다. 실제로 추정과정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변수는 벡터 X_i 에는 연령, 연령자승, 교육에 관한 더미, 거주지역 등이 도입되었다.

일단 式(3-7)이 다항로짓모형으로 最尤法에 의해 반복추정(iterative method)이 되면, 특정 개인 i 의

P_{ji} 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하여 1~8 사이에 어떤 특정 연속치인 $\widehat{CAT}_i$ 를 다음과 같이 구한다.

$$\widehat{CAT}_i = \sum_{j=1}^8 j \cdot P_{ji}, \quad j=1, 2, \dots, 8 \quad \dots\dots\dots (3-8)$$

이것을 이용하여 실제로 구하고자 하는 소득의 연속치(continuous value : $INCOME_i$)는 다음과 같다.

$$INCOME_i = INC_L + (INC_U - INC_L) * \widehat{CAT}_i \quad \dots\dots\dots (3-9)$$

여기서 INC_L 과 INC_U 는 각각 어떤 특정 소득계층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인의 소득을 추정한 결과는 개인이 실제로 조사하여 보고한 소득에 비해 과대평가(overestimate)되고 있었다(표 III-5 참조). 그러나 계층화된 자료를 연속자료로 변환하는

하나의 방법³⁾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미비로 중요한 說明變數를 도입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設定誤差(specification error)보다는 설명변수의 計測誤差(measurement error)를 이 모형에서 감수하고자 하기에 이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모형추정에 이용되는 자료는 주로 가구주의 소득이거나 남편의 소득이므로 추정결과가 여자보다는 남자가 잘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한, 우리의 관행으로 보면 소득이나 임금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실제소득보다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어 추정치가 과대평가된 것이 오히려 실제치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에 필요한 자료 중 현재 취득이 불가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는 취학전 아동수이다. 특히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참가분석을 할 때는 취학전 자녀수가 참가에 制約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용자료에는 이 항목이 빠져 있기 때문에 부득이 여기서도 취득가능한 자료 중 적절한 代理變數를 택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다. 본 조사에서는 14세 미만 가구원수가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특정가구의 취학전 아동수와 국민학교재학 아동수가 합하여 진 것으로 이들의 구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4세 미만 가구원수

<표 III-5> 소득추정치의 계층별 분포

		(단위 : %)								
		1	2	3	4	5	6	7	8	계
전 계	실측치	1.2	4.4	27.2	31.2	31.0	7.5	2.2	1.3	100.0
	추정치	0.0	0.0	0.0	18.8	22.6	21.9	42.6	0.0	100.0
남 자	실측치	0.5	1.9	14.4	32.3	36.8	9.3	2.8	1.6	100.0
	추정치	0.0	0.0	0.0	12.5	28.4	27.9	31.2	0.0	100.0
여 자	실측치	2.6	9.8	53.1	22.2	9.8	1.8	0.3	0.3	100.0
	추정치	0.0	0.0	0.0	30.6	4.1	2.8	62.5	0.0	100.0

를 하나의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취급하여 모형에 도입코자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교육열이 강한 나라에서는 취학전 자녀뿐만 아니라 국민학교 취학후에도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이 역시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계량 경제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설명변수의 배제에서 오는 設定誤差가 모형의 여타변수의 추정계수에 偏倚(bias)를 가져오지만, 설령 무관한 변수(irrelevant variable)의 도입은 여타 설명변수 추정계수의 不偏性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취학전 자녀수 대신 14세 미만 가구원수를 모형에 도입코자 한다⁴⁾.

주석 1) 1986년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수는 1,800가구인바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의 표본수는 140,000가구에 달하고 있다.

주석 2) Maddala(1993)를 참조하거나 앞에서 설명한 본 연구의 多項로짓模型과 동일한 것이므로 Hill(1983)을 참조하여 자세한 이론적 근거를 터득하기 바란다.

주석 3) Bauer and Shin(1987)에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주석 4) Pindyck and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2nd ed., 1981, pp. 128~131 참조.

4. 模型設定 및 推定結果

경제활동상태의 세 가지 형태(e, f, n)가 주는 간접효용수준을 비교하여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어느 하나의 참가 또는 비참가의 형태를 선택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으로 상품공간에서의 效用函數가

그에 영향을 주는 財貨의 量의 함수로 표시되는 것과는 달리, 間接效用(indirect utility)은 각 재화의 가격 및 각 재화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制約條件에 결부된 변수들에 의한 함수로 표시된다.¹⁾ 즉, 가구소득이나 취학전 자녀수 등이 대표적인 제약조건에 결부된 변수이다. 경제활동참가 형태의 가격에 대한 대리변수를 시장임금률로 하면, 임금근로자의 경우에 변수 취득이 가능하지만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가격자료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임금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여 이의 설명변수들을 임금의 대리변수로 모형(간접효용함수)에 도입하고자 한다.

$$\ln W_{ki} = f_k(\text{연령, 연령자승, 교육더미}) \quad (3-10)$$

k = e, f

이 함수는 설명변수에 대해서 모두 模型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추정식

(3-6)에서 설명변수 벡터 X_i 는 연령, 연령자승, 교육더미변수를 비롯하여 制約條件에서 도출되는 가구소득(혹은 가구주소득) 및 여성전체가 분석대상인 경우는 결혼상태더미, 기혼여성만이 대상인 경우에는 취학전 자녀수 등이 추가적인 설명변수로 도입되게 된다.

推定結果를 논하기 전에 이용된 자료 전체와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비참가자별로 설명변수들의 특성을 <표 III-6>에 의하여 살펴보자. 우선 전체대상 여성인력의 평균연령은 36.8세이었으며 임금근로자 30.7세, 무급가족종사자 42.1세 및 비참가자 36.6세로서 무급가족종사자의 연령이 임금근로자의 평균연령에 비해 10세 이상 높다. 有配偶者만을 대상으로 보면 전체가 38.3세이었으며, 경제활동형태별로는 임금근로자 37.4세, 무급가족종사자 42.2세 및 비참가자 37.1세이었다. 여기에서도 무급가족종사자의 평균연령이 가장 높았으나, 전체여성 대상과는 대조적으로 비참가자의 평균연령이 임금근로자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나 비참가자의 경우는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하나, 유배우자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나 평균연령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부문에 미혼여성의 수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평균연령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이 유배우 여성인력으로 판단된다. 반면 임금근로자는 평균연령에서 대상전체(30.7세)와 유배우자(37.4세) 사이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비추어 30세미만의 미혼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표 III-6> 설명변수의 평균 및 분포

	전 체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비참가자
평균연령 (세)	36.8 (38.3)	30.7 (37.4)	42.1 (42.2)	36.6 (37.1)
관측치의 수 (명)	9,719	1,735	1,335	6,649
관측치의 분포 (%)	100.0 (100.0)	17.9 (11.1)	13.7 (20.0)	68.4 (68.8)
초대졸이상	100.0	32.2	3.1	64.7
고 졸	100.0	26.3	6.1	67.6
중졸 이하	100.0	13.5	17.6	69.0

주 : ()안의 수는 유배우여성치의 특성임.

標本の 세 가지 경제상태별 분포를 살펴보자. 總觀測數 9,719명 중 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비참가자의 분포는 각각 17.9%, 13.7% 및 68.4%로 나타났다. 유배우자만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각 11.1%, 20.0%, 68.8%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줄고 무급종사자의 비중은 늘어 유배우자가 미혼인력에서보다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제상태에 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별로 그의 분포를 보면, 학력별 비참가자의 비중은 비교적 대동소이하게(64.7~69.0% 사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금근로자의 비중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고(13.5:26.3:32.2) 무급가족종사자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3.1:6.1:17.6), 학력과 경제상태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초대졸이상인 경우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의 비는 32.2:3.1인데 반해 중졸이하의 경우는 13.5:17.6이어서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의 상태로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고 학력이 낮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로서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단순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관관계에 관한 논의는 이에 영향을 주는 여타 제요인이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결과이므로 본 연구의 回歸分析을 통하여 이에 대한 假說도 검증하기로 한다.

多項로짓모형 추정치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는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둘째는 유배우 여성인력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추정결과는 <표 III-7>과 <표 III-8>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보듯이 대상자료의 차이에 따라 추정모형을 지역별로도 구분하였다.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과 도시지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표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 따른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의 행태 차이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 III-7>에 나타난 여성인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보자. 표에 제시된 설명변수의 추정계수는 두 가지 경제활동상태(임금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와 비경제활동참가자와의 추정계수의 차이로 나타나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하였다. 우선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의 추정계수는 陽(+)의 부호가 기대된다. 즉, 市場賃金率이 높으면 임금근로자로든 무급가족종사자로든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본 모형에서는 임금을 나타내는 변수로 연령과 교육더미변수가 도입되어 있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더미변수로 통제한 후 개인의 시장임금률 변화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의 변화는 다음의 식으로 표시된다.

$$\frac{\partial \ln(P_j/P_k)}{\partial \text{연령}} = a_1 + 2 \cdot a_2 \cdot \text{연령} \quad \dots \dots \dots (3-11)$$

$$j=e, f$$

여기서 a_1 은 연령계수이고 a_2 는 연령자승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8개의 回歸分析結果(도시지역만의 구분이나 유배우 여성만의 구분)에서 a_1 은 모두 陽(+)의 부호, a_2 는 모두 陰(-)의 부호로 統計的 有意性이 높은 결과를 얻었다. 즉, 비교적 젊은 여성인력들은 연령 혹은 경력에 따라 시장임금률의 상승이 빠

<표 III-7> 경제활동참가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여성전체)

	전 지 역		도 시 지 역	
	$\ln(P_H/P_A)$	$\ln(P_H/P_A)$	$\ln(P_H/P_A)$	$\ln(P_H/P_A)$
연 령	0.5039*	0.2559*	0.4805*	0.3390*
	(0.0299)	(0.0310)	(0.0319)	(0.0518)
연령차승	-0.0062*	-0.0027*	-0.0060*	-0.0040*
	(0.0000)	(0.0000)	(0.0000)	(0.0000)
교육더미(초대이상)	-0.0760	-0.6427*	-0.0475	-0.3798
	(0.1197)	(0.2340)	(0.1226)	(0.2359)
교육더미(고졸)	0.0774	0.0094	0.0731	0.0529
	(0.0768)	(0.1419)	(0.0792)	(0.1492)
$\ln(\text{가구주소득})$	-0.1832	-0.1951	-0.1749	0.0908
	(0.1044)	(0.1315)	(0.1114)	(0.1805)
혼인관계더미(사별·이혼)	-0.0659	-0.7576*	-0.0586	-0.7128*
	(0.1283)	(0.1904)	(0.1405)	(0.3187)
혼인관계더미(유배우)	-1.6392*	0.4466*	-1.6256*	0.4985*
	(0.0829)	(0.1316)	(0.0889)	(0.2043)
상 수 항	-9.0090*	-7.1438*	-8.5744*	-9.8528*
	(0.6754)	(0.7781)	(0.7153)	(1.1669)
$-2\ln(L)$	6216.01		4829.65	
관 측 수	4525		3864	

주 : *표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임.

() 안은 절근계 표준오차임.

르게 나타나면 경제활동에 참가할 확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이러한 정도는 연령이 높은 여성인력일수록 감소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2a_2$ 의 절대값은 a_1 에 비하여 극히 적으므로 전연령 구간에서 결코 陰(-)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결국 임금의 상승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그런데, 동일한 연령에서 式(3-11)의 값은 도시지역의 유배우 여성인력을 제외한 다른 回歸分析에서 임금근로자에의 값이 무급가족종사자의 값보다 크다. 이는 임금의 상승이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보다 임금근로자로의 참여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육더미변수의 추정계수는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의 模型設定에 교육은 市場賃金의 陽(+)의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상태 중 비참가자로서의 선택이 개인의 효용을 높여주기 때문에 모형에서 이는 陰

<표 III-8> 경제활동참가의 다항로짓모형 추정결과(유배우 여성)

	전 지 역		도 시 지 역	
	$\ln(P_e/P_n)$	$\ln(P_n/P_n)$	$\ln(P_e/P_n)$	$\ln(P_n/P_n)$
연 령	0.2885*	0.1650*	0.2343*	0.2525*
	(0.0406)	(0.0309)	(0.0425)	(0.0541)
연령자승	-0.0037*	-0.0018*	-0.0031*	-0.0030*
	(0.0000)	(0.0000)	(0.0000)	(0.0000)
교육더미(초대이상)	-0.0110	-0.8103*	-0.0368	-0.5221*
	(0.1564)	(0.2626)	(0.1603)	(0.2649)
교육더미(고졸)	-0.4213*	-0.0126	-0.3887*	0.0454
	(0.1128)	(0.1540)	(0.1159)	(0.1620)
$\ln(\text{남편소득})$	-0.1985*	0.0482	-0.2048*	0.1773*
	(0.0326)	(0.0370)	(0.0356)	(0.0630)
14세미만 가구원수	-0.1757*	0.0960*	-0.1839*	0.0921
	(0.0569)	(0.0504)	(0.0616)	(0.0718)
가구내 시부모유무더미	0.1092	0.0523	0.1917*	-0.0055
	(0.0821)	(0.0735)	(0.0910)	(0.0918)
상 수 항	-6.2898*	-5.9409*	-5.2589*	-8.1535*
	(0.7640)	(0.6488)	(0.8056)	(1.0521)
$-2\ln(L)$	4671.93		3402.14	
관 측 수	3162		2629	

주 : <표 III-7>과 동일.

(-)의 효과도 동시에 발생시켜 추정계수에 상반된 효과가 결국 계수의 유의성을 낮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모형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임금근로자로, 낮을수록 무급가족종사자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경향이 높겠다는 앞에서의 단순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란 어렵다고 평가된다.

가구주 소득의 추정계수도 전지역에서나 도시지역에서 統計的 有意性은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미혼여성에게는 대부분 아버지, 유배우 여성에서는 남편의 소득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모형에 혼인관계더미를 추가하여 미혼자와 유배우자 혹은 미혼자와 사별·이혼의 여성간에 경제활동 차이를 살펴보자. 우선 미혼을 기준으로 한 사별·이혼상태의 여성인력은 임금근로자의 경제활동참가에의 계수 차이가 전지역에서나 도시지역에서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는 양쪽에서 모두 陰(-)의 부호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이는 미혼여성이 사별·이혼상태의 여성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未婚을 기준한 유배우자더미계수는 전지역에서나 도시지역에서 임금근로자로의 참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效果,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참가는 陽(+)의 效果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흔히 예상하듯이 유배우 여성은 미혼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로의 참여도가 낮고

무급가족종사자로의 경제활동참가는 높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경제활동참가 형태에 여성의 혼인상태가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앞으로 기혼여성의 사회진출, 특히 경제활동참가가 급격히 증대되리라는 예상에서 유배우 여성인력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 III-8>에 의해 살펴보자.

基本模型 자체나 推定技法은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과 차이가 없다. 다만 대상이 유배우 여성이므로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주는 說明變數로 代替 혹은 追加되어 모형을

추정하였다. 앞에서의 가구주 소득 대신 여기서는 남편의 소득으로 대체하였고, 이는 이론상 陰(-)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 다른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制約要因인 취학전 아동수 대신에 도입된 14세 미만 가구원수가 역시 陰(-)의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장남인 경우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美德으로 되어 있는 현실이고 보면 가구내 시부모의 有無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며, 이 변수는 陽(+)의 효과로 기대된다.

우선 市場賃金의 대리변수인 연령, 연령자승계수는 앞의 전체여성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교육정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는 8개 중 4개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급대이상 졸업자의 경우, 기준이 되는 중졸이하자에 비해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값으로 나타났고, 임금근로자로서의 참가에서의 차이는 陰의 값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5% 수준에서 유의하지 못했다. 반면 고졸자의 경우 중졸이하자에 비해 임금근로자로서의 경제활동참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값을 가졌고,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참가는 통계적으로 유의치 못한 결과를 얻었다. 즉, 중졸이하의 저학력소지자가 초대졸자보다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참여도가 높고, 고졸학력자보다 임금근로자로서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결국 어떤 형태(임금근로자 혹은 무급가족종사자)로든 저학력의 기혼여성이 고학력의 여성보다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력과 경제활동참가 형태 사이의 직접적 관계를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예측하기란 어렵다. 이론상으로도 학력수준은 임금의 상승을 통한 경제활동참가 증가효과와 비참가형태에서의 효용증가에 따른 경제활동참가 감소효과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명확한 관계를 실증적으로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陰(-)의 효과가 기대된 남편의 소득에 대한 추정계수는 임금근로자로서의 경제활동참가에서는 전지역이나 도시지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陰의 값으로 나타났고, 무급가족종사자로서의 참가는 전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의 낮은 陽(+)의 값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유의성이 높은 陽(+)의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남편의 소득이 비교적 높은 기혼여성은 임금근로자로서 노동시장에 진출하기보다는 무급가족종사자로 남편 혹은 기타 가구원이 경영하는 농장 혹은 소규모 기업체에서 부차적 일을 돕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농가나 도시지역의 비공식부문(informal sector)에서 일반적으로 기혼여성이 남편의 일을 돕는 현상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며, 이는 결국 남편의 소득을 높이게 되어 유배우 여성의 무급가족종사 성향과 남편의 소득사이에 因果關係(causality)를 정확히 규정하기란 어렵다. 14세미만 가구원수는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제약요소를 陰(-)의 효과가 기대되었는데, 전지역이나 도시지역에서 임금근로자로서의 참가는 陰(-)의 값을 가졌고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농촌을 포함한 전지역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陽(+)의 값을 가졌다. 이는 취학전 아동과 국민학교 취학아동이 합해진 이 변수에서 후자의 역할이 오히려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 오히려 취학아동이 동생(취학전 아동)을 돌보아 주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최소한 무급가족종사자로 經活의 참가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²⁾

위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하며 가구내 시부모의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설명변수로 도입하여 보았으나 도시지역 임금근로자로서의 참가에 陽(+)의 추정값을 얻은 것 이외에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도시지역에서 시부모를 모시는 가정에서 유배우 여성의 임금근로자로서의 경제활동참가 성향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그에 근거한 향후 여성인력의 공급양상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에서 임금근로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선택의 차이는 크며, 특히 유배우 여성에게서 그의 정도는 더욱 뚜렷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두 가지 형태를 하나로 묶어 취급한 二分變數模型을 택하였지만, 이보다는 三分變數模型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분석에 더욱 적합함을 발견하였다. 둘째, 市場賃金率의 상승에 따라 여성의 무급가족종사자보다는 임금근로자로서의 참가가 훨씬 두드러지고 있어 노동공급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취업자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産業構造調整 등 대책이 세워져야 하겠다. 셋째, 앞으로 여성인력의 교육수준 상승이 그들의 경제활동참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특히 교육수준의 변화가 취업구조에 주는 영향도 이론적·계량분석적 방법으로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남편 소득의 상승이 유배우 여성으로 하여금 임금근로자로서의 참가에는

억제효과가, 무급가족종사자제로의 참가에는 촉진효과가 있어 이 변수도 여성인력의 취업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리라 보여진다. 다섯째, 향후 우리나라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이에 따른 유배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둔화효과는 극히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주석 1) Layard and Walters, Microeconomic Theory, McGraw Hill, 1978, pp. 148~148.

주석 2) Bauer and Shin (1987) 참조.

IV. 製造業에서의 女性人力 需要分析

1. 問題의 提起

최근 정치·사회적으로 민주화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고용 등 기타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아 온 여성근로자들의 기회균등의 외침이 男女僱傭平等法의 發效를 가져오게 하였다. 6·29선언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이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역할도 강화되어 임금 및 제반 인사·경영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노조는 賃金交渉에서 임금의 상승은 물론이지만 구성원간 임금의 균등화를 목표로 하기 있기 때문에 그동안 차별받아 온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상승 및 개선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여성근로자들이 고용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이 점차 완화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制度的 要因은 이와 같이 여성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개선되고 있는 반면, 앞절에서 분석했듯이 市場的 要因으로서의 여성인력 노동공급은 확대되어 있어 초과공급상태의 失業問題는 과연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좀더 세분하여 보면, 저학력 단순직근로자를 수요하는 제조업 생산직에서 여성근로자의 求人難을 경험하는 상태하에서 사무직에의 공급이나 고학력소지자의 就業難은 심각하여 문제의 해결은 구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겠다. 결국 여성인력 초과수요와 초과공급이 상존하는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본장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뿐만 아니라 각 부문별로 여성인력이 생산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를 投入要素間의 관계를 통하여 분석코자 한다. 특히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제조업에서의 技術進歩가 여성인력의 고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여성노동시장의 여건을 전망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의 諸研究에서 노동을 모두 同質的으로 취급하여 要素間의 관계를 분석한 것과는 달리 인력을 직종별(생산직·사무직)·성별로 구분하여 이들과 資本을 종합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投入要素로 보아 이들 요소간의 代替性 혹은 補完性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여성노동시장의 상황을 전망하고자 한다. 즉, 생산직이나 사무직에서의 여성인력이 남성 또는 자본과 상호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이들 요소들의 수요패턴을 통하여 여성인력의 중장기 노동시장 상황을 전망코자 하는 것이다.

2. 模型設定

전형적인 超越代數生産函數(transcendental logarithmic production function)의 형태는 生産과 投入要素間의 관계가 로그형태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ln Q = f(\ln X_i, \ln T) \quad (4-1)$$

$$i=1, 2, \dots, n$$

여기에서 Q는 생산량, X_i 는 생산요소의 투입량을 의미하며 T는 기술수준을 나타내는 변수이다. 식(4-1)을 「테일러」(Taylor)식으로 전개하여 제2단계까지만 취하면 일반적으로 흔히 이용되는 초월대수생산함수 형태를 얻게 된다. 즉,

$$\ln Q = \ln a_0 + \sum_i \alpha_i \ln X_i + \alpha_T \ln T + \frac{1}{2} \sum_{i,j} \gamma_{ij} \ln X_i \ln X_j + \frac{1}{2} \gamma_{TT} (\ln T)^2 + \sum_i \gamma_{iT} \ln X_i \ln T \dots\dots\dots (4-2)$$

$i, j = wm, wf, bm, bf, k$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요소의 구분을 노동의 성질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4가지의 구분과 자본으로 총 5가지의 投入物로 하였는데, wm은 남자사무직근로자, wf는 여자사무직근로자, bm은 남자생산직근로자 및 bf는 여자생산직근로자이며 k는 자본을 의미한다. 즉, 노동을 세분하여 여성인력의 노동수요측면에서 남성인력과 혹은 자본과의 代替性(substitutability)이나 補完性(complementarity)을 파악함으로써 공급이 증가되고 있는 여성인력의 수요전망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생산함수에 기술수준을 의미하는 변수 lnT를 도입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진행되는 기술진보가 勞動使用的이었는지 아니면 資本使用的이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雇傭政策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식(4-2)로부터 기술진보율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rac{\partial \ln Q}{\partial \ln T} = \alpha_T + \gamma_{TT} \ln T + \sum_i \gamma_{iT} \ln X_i \dots\dots\dots (4-3)$$

이때 γ_{TT} 가 기술변화의 偏倚(technical change bias : TCB)를 나타내는 계수인데 이것이 零이면 偏倚없다고 보면, $\partial \ln Q / \partial \ln T = \alpha_T + \gamma_{TT} \ln T$ 만큼의 「 Hicks 」 (Hicks) 중립적 기술진보율을 가진 생산을 한다고 보며, γ_{iT} 가 i에 대해서 모두 零이 아니면 이 때의 기술진보는 「 Hicks 」 중립적이지 아니라고 한다.

生産에서 企業의 利潤極大化 제1계조건에 의하면

$$\frac{\partial Q}{\partial X_i} = P_i, \quad i=1, 2, \dots, 5, \dots\dots\dots (4-4)$$

이다. 이때 P_i 는 요소 i의 가격을 의미하며 생산량 Q의 가격은 1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초월대수생산함수는 兩代數形態(double-log form)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frac{\partial \ln Q}{\partial \ln X_i} = \frac{\partial Q}{\partial X_i} \cdot \frac{X_i}{Q} = \frac{P_i X_i}{Q} = S_i \dots\dots\dots (4-5)$$

$i=1, 2, \dots, 5,$

이다.

여기서 S_i 는 총생산량 Q 에 대해서 요소 i 에 배분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배분율을 식(4-2)로부터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S_i = \frac{\partial \ln Q}{\partial \ln X_i} = \alpha_i + \sum_j r_{ij} \ln X_j + \sum_i r_{iT} \ln T \dots\dots\dots (4-6)$$

$$i, j = 1, 2, \dots, 5.$$

앞에서 설명한 기술진보의 偏倚(TCB)를 위의 분배율 方程式(share equation)을 이용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TCB_i = \frac{\partial S_i}{\partial \ln T} = \frac{\partial P_i X_i / Q}{\partial \ln T} = r_{iT} \dots\dots\dots (4-7)$$

에서 규모에 대한 報酬不變¹⁾(constaut returns to scale)을 가정하면, r_{iT} 의 부호는 기술진보에 대한 요소 i 의 분배율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r_{iT} > 0$: 要素 i 使用的 技術進步

$r_{iT} = 0$: 要素 i 中立的 技術進步

$r_{iT} < 0$: 要素 i 節約的 技術進步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生産函數의 係數推定이나 필요한 자료형성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가정하는 1次同次的(linear homogeneous) 生産函數를 본 논문에서도 설정하면 다음의 제약조건이 부과되어야 한다.

$$\sum_i \alpha_i = 1, \sum_i r_{ij} = 0, \sum_j r_{ij} = 0, \sum_{i,j} r_{ij} = 0,$$

$$\sum_i r_{iT} = 0, i, j = 1, 2, \dots, 5 \dots\dots\dots (4-8)$$

$$r_{ij} = r_{ji}, i, j = 1, 2, \dots, 5 \quad (4-9)$$

이상 同次性(homogeneity)과 對稱性의 제약조건을 식(4-6)에 부과하면 그 方程式體系는 特異性(singular) 때문에 동시에 추정될 수가 없다. 그러나, 어떤 特定要素 k 에 관한 配分率方程式을 제거한다면, 다음과 같은 5개 중 4개만의 방정식을 추정함으로써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계수들을 얻을 수 있다.

$$S_i = \alpha_i + \sum_{j=1, \dots, k-1, k+1, \dots, 5} r_{ij} (\ln X_j - \ln X_k) + r_{\pi} \ln T \dots\dots\dots (4-10)$$

이 방정식 체계는 「젤러」(Zeller)의 추정방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에 의하여 反復推定함으로써 配分率方程式의 계수가 추정가능하게 된다.³⁾
추정된 방정식의 계수(r_{ij})와 요소 i 의 所得分配分(S_i)으로부터 요소간의 대체성이나 보완성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 Hicks」가 정의한 補完彈力性(elasticities of complementarity : C_{ij})의 계산법을 알아 보면

$$C_{ij} = r_{ij}/S_i S_j + 1$$

$$C_{ij} = (1/S_i^2)(\alpha_{ij} + S_i^2 - S_i) \quad (4-11)$$

$i = 1, 2, \dots, 5$

이다.
이는 「알렌」(Allen)의 部分代替彈力性⁴⁾(partial elasticities of substitution)의 概念과 逆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의 부호에 따라 두 要素 i, j 간의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만약 $C_{ij} > 0$ 이면 두 요소 i 와 j 는 상호 補完關係(q-complements)이며 반대로 $C_{ij} < 0$ 이면 두 요소는 상호 代替關係(q-substitutes)에 있다고 한다.⁵⁾ 또한 自己補完彈力性(C_{ii})은 잘 정의된 (well-behaved) 생산함수에서는 항상 陰(-)의 값을 가져야 한다.⁶⁾

주석 1)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 혹은 1次同次性的 가정하에 Euler's Theorem에

의하면 $Q = \sum_i P_i X_i$ 가 성립한다. 그런데 $\sum_i P_i X_i / Q = 1$ 이어서 어느 특수요소 i 의 분배분 $P_i X_i / Q$ 의 증가는 여타 요소들의 분배분의 합의 감소를 의미한다.

주석 2) Hicks의 정의에 의한 기술진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만일 자본·노동비율(K/L)이 같을

때 요소간 상대분 배율 $\pi = rK/WL$ 이 증가되었으면 $(\pi > 0)$ 이때의 기술진보는

자본사용적이고, 감소되었으면 $(\pi < 0)$ 노동사용적이다. 이의 변화가 없으면 $(\pi = 0)$

중립적이라 한다.(Jones, 1976, pp. 156~164 참조).

또한 생산함수가 연속이고, 2次微分 可能함을 가정하면 다음의 對稱性(symmetry)의 조건도 만족해야 한다.

주석 3) Zeller(1962) 참조

주석 4) 이는 생산함수와 雙對性(duality)의 관계가 있는 비용함수의 추정계수로부터 쉽게 구할 수 있다.

주석 5) 마찬가지로 Allen의 부분대체탄력성으로부터 代替要素(p-substitues) 및 補完要素(p-complements)의 관계가 정의된다.(Sato and Koizumi(1973) 참조).

주석 6) Sato and Koizumi(1973) 참조

3. 資料 및 推定方法

초월대수생산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이용된 자료는 주로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이며,

일관성있는 時系列資料는 1971~86년 사이여서 이를 回歸分析에 이용하였다. 1971년 이전 보고서는 본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勞動投入量이 성별 및 생산·사무직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1987년 이후의 자본스톡추계자료는 취득이 불가능하여 결국 1971~86년의 시계열자료가 이용되었다. 특히 1970년부터 조사기관이 경제기획원으로 일원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선정에서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이후 자료의 이용이 추정결과 분석에 일관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¹⁾

이용자료를 모형에 도입될 변수별로 살펴보자. 시계열자료임에도 조사보고서에 나타난 經常價格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왜냐하면 실제로 추정하게 될 식(4-10)의 요소배분을 방정식에서 종속변수는 $S_i = P_i X_i / Q$ 로 표시되어 경상가격에서 파생되는 偏倚현상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勞動投入量은 연간 총노동시간수를 사용하였다. 「광공업통계조사보고」의 雇傭에 관한 정보로부터 平均피고용자수와 年末피고용자수를 수집할 수 있는데 평균피고용자수는 겨우 1982년 이후에야 사무직과 생산직을 구분하여 보고되고 있는 반면, 연말피고용자수는 전기간에 걸쳐서 위의 두 직종 구분은 물론 성별로도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평균 피고용자수는 고용자수의 계절적 변동이 고려된 반면 연말피고용자수는 그것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말피고용자수를 자료로 이용한다면 다소의 偏倚性을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비교가능한 1983년 이후의 자료(표 IV-1 참조)에 의하면 평균과 연말피고용자의 차이에 있어서 사무직의 경우는 0.2%에서 1.4%로 1.2%포인트의 변동(variation)에 그치고 있으며, 생산직의 경우도 6.1%에서 9.8%로 3.7%포인트의 변동에 그치고 있어 평균 대신 연말피고용자수를 이용하더라도 회귀분석의 계수추정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이다. 또한 본 자료는 월별 혹은 분기별 자료가 아니고 연별자료이므로 계절변동이 회귀분석에 미치는 위험성에서는 벗어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생산함수추정에 이용된 勞動投入量은 성별·직종별 총근로자수×12×월평균 근로시간수(man-hours)로 하였다. 이 때 월평균 근로시간수는 위의 資料源에서 취득이 불가능하여 노동부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 수집하였다.

資本스톡의 자료는 「표」(Pyo, 1988) 敎授의 산업별 추정치를 이용하였다.

要素配分率($P_i X_i / Q$)方程式의 종속변수계산을 위하여 $P_i X_i$ 즉, 요소 i의 분배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광공업통계조사보고」에 있는 직종별 연간 급여액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성별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직종에서의 총

<표 IV-1> 평균 및 연말 피고용자수의 비교(전체조업)

(단위: 천명)

		1983	1984	1985	1986
평균 피고용자수 (A)	생산직	134,843	140,087	143,135	151,120
	사무직	47,528	47,170	48,211	52,551
연말 피고용자수 (B)	생산직	126,605	126,248	132,555	141,798
	사무직	48,197	46,989	48,868	52,672
A-B	생산직	8,238(6.1)	13,839(9.8)	10,580(7.4)	9,322(6.2)
	사무직	-669(1.4)	181(0.4)	-657(1.4)	121(0.2)

주: () 안의 수는 평균피고용자 기준인 %임.

자료: 경제기획원, 「광공업통계조사보고」, 각호.

급여액을 성별로 배분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에 의하면

연도별·직종별·성별 임금액이 취득가능하다.

이를 기초로 전체조업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계산하여 동일직종내의 성별 임금총액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어느 특정직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총급여액은 $P_m X_m + P_f X_f$ 이다. 여기서 P는 임금액, X는 근로자수, m과 f는 남녀를 의미한다. 어느 특정직종의 남녀 임금격차는 결국 $P_m =$

$\alpha \cdot P_i$ 의 관계를 의미하여 α 를 각년도별로 알게 되면 총급여액($P_m X_m + P_f X_f$)에서 $P_m X_m$ (남자급여액)과 $P_f X_f$ (여자급여액)를 쉽게 분리하게 되어, 이를 要素配分率($S_i = (P_i + X_i)/Q$) 변수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4개로 구분된 각 노동투입량에 대한 요소배분율을 구했으며

$$S_i = 1 - \sum_{i=1}^4 \frac{P_i X_i}{Q}$$

나머지 자본스톡의 배분율은 로 그 잔여액으로 하였다.

이론적으로 타당한 추정계수를 얻기 위해서는 원래 가정 가정한 초월대수생산함수인 식(4-2)와 요소배분율 방정식(4-10) 중 어느 한 방정식을 제거한 4개의 방정식을 同時方程式體系(simultaneous equation system)로 하여 回歸分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함수 자체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정식체계로부터 추정된 계수(r_{ij})를 이용하여 요소간 보완탄력성을 구하는 것이고, 또 1971~86년간의 時系列資料에서 관측치가 方程式別로 16개에 지나지 않아 自由度(degrees of freedom)를 높이기 위한 또 다른 목적상 5개의 동시방정식체계 중 첫 번째인 생산함수식(4-2)는 실제추정시 제외하고 계수를 추정하였다. 그래서, 4개의 要素配分率方程式을 「젤러」의 反復推定技法(iterative estimation)을 이용하여 추정(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하였다. 이때 제외된 요소분배율 방정식은 자본의 것으로 이에 관한 계수는 사후적으로 同次性(homogeneity)의 제약조건에 따라 계산하여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본 모형은 우선 전제조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그 다음 9개 부문별로도 같은 분석을 하여 전제조업의 결과와 부문별 결과와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여러 가지 정부의 정책(예를 들면 重化學工業育成政策 등)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각 부문별 여성인력의 需要形態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주석 1) 「광공업통계조사」 조사기관

1960년 이전 : 상공부, 산업은행

1963~69년 : 경제기획원, 산업은행

1970년 이후 : 경제기획원

4. 實證分析結果

가. 전제조업의 분석결과

推定結果는 <표 IV-2>에 있다. 이용된 推定技法에서 전체적인 방정식체계의 適合度檢定을 위한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統計패키지(SHAZAM)에서 제시한 것을 기초로 알아보자. 우선 방정식체계 결정계수(System R^2)는 0.9980으로 대단히 높으며, x^2 통계량은 99.6으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個別方程式에서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치의 標準誤差(S.E.E)가 실제로 추정된 4개의 방정식에서 모두 0.0035미만이었고, 계수들도 反復推定法에서 아주 쉽게 收斂(convergence)되었음에 비추어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표 IV-2> 전제조업의 요소소득배분율 방정식 추정치

	S_{LW}	S_{LF}	S_{LM}	S_{LF}	S_A
$\ln X_{LW}$	.00502 (.767)	-.00345 (3.18)	.00233 (.436)	.00197 (.694)	-.00587
$\ln X_{LF}$	-.00345 (3.18)	.00176 (3.74)	.00217 (2.21)	.00057 (1.07)	-.00105
$\ln X_{LM}$	.00233 (.436)	.00217 (2.21)	.01643 (2.35)	-.01225 (3.73)	-.00868
$\ln X_{LF}$	.00197 (.694)	.00057 (1.07)	-.01225 (3.73)	.01831 (9.00)	-.00860
$\ln X_A$	-.00587 (3.18)	-.00105 (3.74)	-.00868 (2.35)	-.00860 (3.73)	.02420
$\ln T$	.03573 (1.13)	.01276 (2.93)	.02452 (.506)	.04836 (1.97)	-.12101
상수항	-.16321 (1.14)	-.05737 (2.52)	-.09497 (.368)	-.22381 (1.72)	1.53936
추정치의 표준오차	.0019	.0028	.0035	.0018	
종속변수의 평균치	.0221	.0031	.0446	.0227	.9076

주 : ()안의 수는 t-통계량의 절대치임.
 $t_{0.05, 95}=2.228$, $t_{0.01, 95}=1.812$ 임.

4. 實證分析結果

가. 전제조업의 분석결과

推定結果는 <표 IV-2>에 있다. 이용된 推定技法에서 전체적인 방정식체계의 適合度檢定을 위한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統計패키지(SHAZAM)에서 제시한 것을 기초로 알아보자. 우선 방정식체계 결정계수(System R^2)는 0.9980으로 대단히 높으며, x^2 통계량은 99.6으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個別方程式에서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치의 標準誤差(S.E.E)가 실제로 추정된 4개의 방정식에서 모두 0.0035미만이었고, 계수들도 反復推定法에서 아주 쉽게 收斂(convergence)되었음에 비추어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표 IV-2> 전제조업의 요소소득배분율 방정식 추정치

	S_{LW}	S_{LF}	S_{LM}	S_{LF}	S_A
$\ln X_{LW}$	.00502 (.767)	-.00345 (3.18)	.00233 (.436)	.00197 (.694)	-.00587
$\ln X_{LF}$	-.00345 (3.18)	.00176 (3.74)	.00217 (2.21)	.00057 (1.07)	-.00105
$\ln X_{LM}$	.00233 (.436)	.00217 (2.21)	.01643 (2.35)	-.01225 (3.73)	-.00868
$\ln X_{LF}$	.00197 (.694)	.00057 (1.07)	-.01225 (3.73)	.01831 (9.00)	-.00860
$\ln X_A$	-.00587 (3.18)	-.00105 (3.74)	-.00868 (2.35)	-.00860 (3.73)	.02420
$\ln T$	.03573 (1.13)	.01276 (2.93)	.02452 (.506)	.04836 (1.97)	-.12101
상수항	-.16321 (1.14)	-.05737 (2.52)	-.09497 (.368)	-.22381 (1.72)	1.53936
추정치의 표준오차	.0019	.0028	.0035	.0018	
종속변수의 평균치	.0221	.0031	.0446	.0227	.9076

주 : ()안의 수는 t-통계량의 절대치임.
 $t_{0.05, 95}=2.228$, $t_{0.01, 95}=1.812$ 임.

4. 實證分析結果

가. 전제조업의 분석결과

推定結果는 <표 IV-2>에 있다. 이용된 推定技法에서 전체적인 방정식체계의 適合度檢定을 위한 통계량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한 統計패키지(SHAZAM)에서 제시한 것을 기초로 알아보자. 우선 방정식체계 결정계수(System R²)는 0.9980으로 대단히 높으며, x² 통계량은 99.6으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個別方程式에서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정치의 標準誤差(S.E.E)가 실제로 추정된 4개의 방정식에서 모두 0.0035미만이었고, 계수들도 反復推定法에서 아주 쉽게 收斂(convergence)되었음에 비추어 모형의 적합성은 통계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

<표 IV-2> 전제조업의 요소소득배분율 방정식 추정치

	S_{LW}	S_{LH}	S_{LM}	S_{LH}	S_L
$\ln X_{LW}$	.00502 (.767)	-.00345 (3.18)	.00233 (.436)	.00197 (.694)	-.00587
$\ln X_{LH}$	-.00345 (3.18)	.00176 (3.74)	.00217 (2.21)	.00057 (1.07)	-.00105
$\ln X_{LM}$	.00233 (.436)	.00217 (2.21)	.01643 (2.35)	-.01225 (3.73)	-.00868
$\ln X_{LH}$	.00197 (.694)	.00057 (1.07)	-.01225 (3.73)	.01831 (9.00)	-.00860
$\ln X_L$	-.00587 (3.18)	-.00105 (1.07)	-.00868 (2.35)	-.00860 (3.73)	.02420
$\ln T$	.03573 (1.13)	.01276 (2.93)	.02452 (.506)	.04836 (1.97)	-.12101
상수항	-.16321 (1.14)	-.05737 (2.52)	-.09497 (.368)	-.22381 (1.72)	1.53936
추정치의 표준오차	.0019	.0028	.0035	.0018	
종속변수의 평균치	.0221	.0031	.0446	.0227	.9076

주 : ()안의 수는 t-통계량의 절대치임.

$t_{0.01, 99}=2.228$, $t_{0.05, 99}=1.812$ 임.

V. 結論 및 政策課題

본 연구에서 살펴본 여성인력의 供給行態分析과 그들에 대한 생산과정에서의 需要分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供給側面에서의 분석에 의하면 향후 여성인력의 경제활동참가는 꾸준히 증가하리라는 판단이다. 앞으로 지속될 노조의 조직확대 및 역할강화 등 제도적 요인이 絕對賃金の 상승을 가져오게 되어 이에 여성인력도 예외일 수 없으며, 아울러 均等 혹은 同等賃金の 추구로 성별 임금격차의 완화현상이 여성의 相對賃金の 상승에 기여하게 되어 결국 절대적·상대적 임금상승이 이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리라 전망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의하면 여성인력 중에서도 특히 既婚有配偶女性의 경제활동참가가 꾸준히 증가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出生率의 저하 즉 가구당 자녀수의 감소가 출산·육아기간의 단축을 가져와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시부모가 자녀를 돌봄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증가시킨다는 가설의 통계적 의미가 없어 향후 지속되는 핵가족화가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 감소요인이 못되므로 결국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지속적으로 증가되리라는 전망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종사상지위별로 그 변화가 뚜렷하다. 즉, 그동안 여성의 상당부분이 종사했던 무급가족종사자로의 참가보다는 임금근로자로의 참가 비중이 앞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경기변동이나 산업구조의 개편 등 需要側面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需給 兩面의 변화가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여성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임금근로자로의 노동공급은 꾸준히 증가되어 이의 구성비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제조업에서의 여성인력 수요분석 결과는 사무직이나 생산직 모두에게 남성인력과 상호 대체관계였다. 이는 남녀인력이 노동시장에서 취업기회 등 여러 가지 고용 조건에서 상호 경쟁적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생산현장에서 직무나 업무수행과정이 남성위주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성과 관계없는 제반 사회적 인식에서도 성별 차별요인이 상존하여 특히 雇傭側面에서 여성인력이 차별받고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남성이 여성인력을 대체하기는 쉬워도 그 반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결국 현재의 경제·사회적 상태가 지속되는 한 여성의 취업기회는 개선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와 고급인력의 과잉공급에 따른 남성실업의 증가로 인하여 여성노동시장 상황은 더욱 어둡기만 하다.

그동안 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중소기업 위주의 경공업분야에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다. 그런데, 본 연구에 의하면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 경공업은 중화학공업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발휘했음에 비추어 볼 때 향후 고용안정을 위하여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겠다.

특히, 경공업에서 여성인력의 고용효과가 컸던 것에 비추어 여성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중소기업 중심의 경공업분야에 정책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여성인력의 활용이나 여성노동시장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장기 정책적 과제를 몇 가지 제시코자 한다.

1. 職業訓練의 擴大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職務訓練이 확대되어야 한다. 제Ⅱ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公共・事業內・認定職務訓練의 훈련주체별 기능사양성실적(표Ⅱ-10 참조)에서 여성은 불과 20%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그 중 정부가 정책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직업교육을 시키는 공공직업훈련제도의 경우는 불과 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기타 기업내 혹은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훈련시키는 여성인력의 구성비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또한 비교적 단기간에 양성하여 노동시장에 배출하는 하위 직종에서 여성의 비중이 크고, 정부나 직업훈련관리공단처럼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직업훈련 후 노동시장에 배출하는 인력에서의 여성구성비가 미약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직업훈련에서부터 여성인력은 자의든 타의든 차별을 받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업이나 임금면에서 차별을 면키 힘들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직업훈련대상종목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인력에게 질 높은 노동공급은 물론이고 이는 결국 고용·임금 등에서 차별요인을 제거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은 과거처럼 근무조건이 열악한 소위 하위직종에서 탈피하여야 하며, 그래야 여성 스스로도 훈련에 적극 참여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2. 雇傭制度의 改善

기혼여성의 특수성에 부합되는 고용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은 고용(常時)이나 임금면에서 생산성과 관계없는 요인에 의하여 오랫동안 차별을 받아 왔다. 그 요인으로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여성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기업의 고용 등에 경제적 관행으로 뿌리를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수행이 短期에 이런 차별문제를 해결하기란 어렵다. 또한, 남녀 동등한 취업기회가 통념화되어 있는 서유럽제국에서도 여전히 성별 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점진적 개선을 위한 고용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여성인력, 특히 향후 증가가 지속될 기혼여성을 위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雇傭制度의 導入 및 實質的 活用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제조업 생산직에서의 人力의 空洞化, 단순인력의 초과수요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의 제도는 여성 특히 기혼여성인력의 誘引政策으로 바람직하다 하겠다.

첫째, Flex Time制度의 導入 : 여성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는데 장애요인은 결혼·출산·육아 등이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 근로자 자신이나 기업 혹은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만

여성의 경제·사회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여성은 위의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일단 퇴직이 되면 우리나라처럼 노동의 초과공급 상태하에서는 출산·육아후 재취업의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할 수밖에 없고 취업되었다 하더라도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못해 생산성 저하라든지, 재선택된 직종의 취약성으로 저임의 악조건을 면키 어렵다. 그렇다면, 자녀양육기간에 기혼여사원으로 하여금 출퇴근 시간조정 등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직종에서부터 이 제도의 도입이 실현된다면 高生産性の維持 및 退職率의 低下를 가져오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이 제도는 비교적 고학력 여성이 지출하고 있는 전문직이나 기타 근로자간 업무연결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직종 및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제조업 등에서부터 실시하도록 기업 스스로나 정부처원의 정책적 제도 마련이 있어야겠다.

둘째, 파트타임制의 改善: 일반적으로 파트타임(임시고용) 근로자의 이용은 회사측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고 경기변동에 따른 雇傭調整이 용이하며, 常時雇傭(full time)者의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휴식시간 등에 의한 업무단절의 단점을 보완키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보호 측면에서는 부정적이고 소극적 방법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의 적절한 활용은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가사에 할애하는 시간을 늘일 수 있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혹은 그 이상의 근무에 얽매이지 않고 4시간 혹은 6시간 근무의 신축적 운용을 통해서 기혼여성의 강한 경제활동참가의욕을 흡수하여 고용기회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백화점의 판매직 등에서 흔히 이용되고 있지만 점점 규모가 커가는 3차 산업에서의 다양한 직종에서 이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은 단순히 저임금이나 노조설립의 억제 등 노동착취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도 좀더 긍정적 측면에서 여성인력, 특히 기혼여성의 풍부한 잠재노동력을 이용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 정부도 임시고용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피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의 활용 및 실업의 극소화정책의 일환으로 法的·制度的 裝置 마련과 관련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겠다.

셋째, 再雇傭制의 實施: 여자는 결혼후 퇴직해야만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관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후 계속 근무한다거나 혹은 육아 후 동일직장에 복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육아후의 기혼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인력이나 노동시장에 진입한 신규기혼여성과의 경쟁에서 고용상의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에 의한 사회참여의 욕구가 강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축적된 사회적·가정적 경험은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일에 임하는 진지함을 더해주어, 결국 勞動의 質의 向上을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육아후 재취업된 직장은 평생직장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일의 능률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하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육아후 재취업의 기회를 기혼여성에서 확대해 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힘써야겠다. 그 하나로 결혼후 출산·육아 등에 필요한 일정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원할 경우 반드시 再入社가 가능토록 하는 再雇傭制의 도입을 기업에 적극 권장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男女雇傭平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겠다. 일부 회사의 생산직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의 대상직종 확대적용에 기업이나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3. 職務再編成 및 職種開發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재편성 및 직종개발에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이 여성인력의 활용을 기피하는 원인중의 하나는 여성인력 투입에 따른 期待效果를 거둘 수 있는 직무의 범위나 내용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요즈음처럼 급속도로 변하는 각종 기술변화에 따른 새로운 직종에 여성인력을 투입한다든지 혹은 이미 남성의 직무로만 여겨왔던 직종에 여성인력을 대체해도 생산성의 저하가 아니라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 있도록 직무의 범위 및 내용의 명확한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표 2>에 우리나라 모 대기업에서 社内用으로 작성한 女性人力活用方案 모색에서 무려 51개 직종에 350개의 직무로 세분하여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 및 직무로 추천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현재 주로 남성들이 수행하고 있고 남성에게 적합하리라는 고정관념에 싸인 직종들도 상당히 많다. 그러나, 모든 기업들은 좀더 세밀히 직무의 특성 및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업무를 분장하고 이를 실천한다면 아직도 비교적 풍부히 공급되는 여성인력을 활용한다는 거시적 평가와 기업내 비용절감이라는 미시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인력이 남성인력을 대체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용관행상 쉽지 않으므로 여성노동의 활용 및 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여성에게 적합한 직무 및 직종개발에 기업과 정부가 공동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수요창출의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산업(제조업생산직)에서의 초과수요, 고학력노동력의 초과공급, 지속적인 여성인력의 공급증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의 失業狀態 등 노동시장에서의 구조적 문제하에서 제조업생산직 등 단순인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 여성인력, 특히 既婚女性人力の 활용은 문제의 해결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본연구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생산과정에서 여성은 남성인력과 강한 대체성이 있었기에 그 대체가능성은 높다고 보인다.

4. 育兒・託兒施設の 擴充

育兒休暇施設 및 施設の 確保가 필요하다. 특히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에서는 社内 혹은 地域内 탁아소 설립을 통하여 인력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잠재인력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겠다. 실제로 제조업 몇몇 개별기업 혹은 기업군 단위에서 시행하여 기혼여성인력의 확보로 현재와 같은 심각한 제조업 인력난을 극복한 예들도 있다.

參考文獻

- 具成烈, 「우리나라 勞動力의 潛在的 供給源에 관한 研究」, 『연세논총』, 제21집,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5, pp.49-70.
- 金光錫·朴勝祿, 「우리나라 製造業의 生産性變化와 그 要因의 分析」, 연구총서 5, 산업연구원, 1988.
- 金秀坤·朴垣求·河泰鉉, 「福祉社會의 人力政策과 職業安定」, 연구·조사 보고 81-04, 한국개발연구원, 1981.3.
- 金秀坤·沈慶玉, 「韓國女性의 經濟活動參加要因 分析」, 연구보고 84-05, 한국개발연구원, 1984.
- 金仲秀·朴垣求, 「産業構造變化와 人力政策」, 『韓國開發研究』, 한국개발연구원, 1986년 봄호.
- 裒茂基, 「勞動經濟學」, 경문사, 제2판, 1989.
- 申榮秀, 「韓國製造業 女性人力의 補充彈性性 및 需要分析」, 『韓國經濟研究』, 第4卷 第2號, 韓國經濟研究院, 1990. 12, pp.132-152.
- 신용자·심경옥 외, 「職種開發에 관한 研究」, 연구보고 200-7, 한국여성개발원, 1988.
- 이선·신영수·윤석천·이동임, 「유희노동력의 실태와 고용정책과제」, 연구보고서 88-7, 직업훈련연구소, 1988.
- 최정표, 「한국과 대만의 제조업부분 생산성구조 비교」, 『韓國經濟研究』, 제1권 제1호, 한국경제연구소, 1987, pp.73-92.
- 勞働部, 「女性과 就業」, 1988.
- _____, 「직업훈련사업 현황」, 각년도.
- _____,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 각년도.
-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 _____, 「광공업생산서비스보고서」, 1973, 1978, 1983.
- _____,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 _____, 「제2차 고용구조특별조사결과보고」, 1987.
- _____, 「한국의 사회지표」, 1988.

- Bauer, John and Young-Soo Sh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Wages in the Republic of Korea*, EWPI Working Paper 54, East-West Center, Honolulu, Hawaii, 1987.
- Berger, Mark, "Changes in Labor Force Composition and Male Earnings: A Production Approach",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7, 1983, pp.177~196.
- Cain, Glenn G., *Married Women in the Labor For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6.
- Cogan, John, *Labor Supply and the Value of the Housewife's Time*, Santa Monica,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1975.
- _____, *Married Women's Labor Supply: A Comparison of Alternative Estimation Procedures*, Santa Monica, California: The Rand Corporation, 1978.
- Domencich, Thomas, and Daniel McFadden, *Urban Travel Demand: A Behavioral Analysis* Amsterdam: 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5.
- Gronau, Reuben, "The Effect of Children on the Housewife's Value of Tim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Mar/Apr, 1973, S.168-S.169.
- Hamermesh D. and J. Grant, "Economic Studies of Labor-Labor Substitu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Journal of Human Resources* 14, 1979, pp.518~542.
- Heckman, James J., "Shadow Prices, Market Wages, and labor Supply", *Econometrica* 42, July, 1974, pp.679-694.
- _____,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47, Jan. 1979, pp.153~161.
- _____,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with an Application to the Estimation of Labor Supply Functions", in James P. Smith(ed.), *Female Labor Supply: Theory and Estimation*, Princeton: Princeton

- University Press, 1980.
- Hill, Ann M.,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Consideration of the Informal Sector",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5, 1983, pp.459-468.
- _____,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Japan: An Aggregate Model,"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9, 1984, pp.280-287.
- _____, "Female Labor Supply in Japa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4, 1989, pp.143-161.
- Jones, Hywel G., *An Introduction to Modern Theories of Economic Growth*, McGraw Hill, 1976.
- Koo, Sung-Yeal, *A Demographic-Economic Model for Korea: Long-Term Demographic Prospect and Policy Impacts*, KDI Working Paper 8201, KDI, 1982.
- Kwon J. K. and K. Yuhn, "Analysis of Factor Substitution and Productivity Growth in South Korean Manufacturing",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Internal Convention of Korean Economists, Aug. 2-3, 1988.
- Layard and Walters, *Microeconomic Theory*, McGraw Hill, 1978.
- Maddala G. S.,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etr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 Mincer, Jacob,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Married Women", in H. Gregg Lewis(ed.), *Aspects of Labor Econom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2.
- McFadden, Daniel, "Analysis of Qualitative Choice Behavior", in Paul Zarembka(ed.), *Frontiers in Econometrics*, New York: Academic Press, 1974.
- National Institute of Employment and Vocational Research, *Women Workers in Japan*, NIER Report No.4, Japan, 1988.
- OECD, *Labor Force Statistics*, 1989.
- Pindyck and Rubinfeld, *Econometric Models and Economic Forecasts*, McGraw Hill, 2nd ed., 1981.
- Pyo, Hak-Kil, "Estimates of Capital Stock and Capital/Output Coefficients by Industries for the Republic of Korea(1953~86)", KDI Working Paper, No. 8810, KDI, Sept. 1988.
- Sato R. and T. Koizumi, "On the Elasticities of Substitution and Complementarity", *Oxford Economic Papers*, March 1973, pp.44-56.
- Zellner, Arnold,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e Bias", *Journal of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 June 1962, pp.348-368.

<부표 1> OECD국가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

	1970*	1975	1980	1985	1988
캐나다					
참가율총수	64.0	68.7	72.6	74.6	76.9
남자	87.1	87.2	87.6	86.2	86.8
여자	41.1	50.5	57.9	63.2	67.2
실업률총수	5.9	6.9	7.5	10.5	7.8
남자	6.6	6.2	6.9	10.3	7.4
여자	4.5	8.1	8.4	10.8	8.4
미 국					
참가율총수	69.9	71.3	74.3	76.1	77.7
남자	90.1	88.2	87.8	87.1	87.4
여자	50.4	54.9	61.3	65.5	68.3
실업률총수	4.8	8.3	7.0	7.1	5.4
남자	4.1	7.6	6.7	6.8	5.3
여자	5.9	9.3	7.4	7.6	5.5
일 본					
참가율총수	72.0	70.4	71.8	72.4	72.7
남자	89.2	89.7	89.0	87.8	87.2
여자	55.4	51.7	54.9	57.2	58.3
실업률총수	1.1	1.9	2.0	2.6	2.5
남자	1.2	2.0	2.0	2.6	2.5
여자	1.0	1.8	2.0	2.7	2.6
오스트레일리아					
참가율총수	69.2	69.9	70.1	69.7	71.7
남자	92.4	89.9	87.6	85.1	84.4
여자	45.6	49.7	52.5	54.1	58.8
실업률총수	1.4	4.6	5.9	7.9	6.8
남자	1.0	3.5	5.0	7.8	6.5
여자	2.3	6.5	7.4	8.0	7.3
핀란드					
참가율총수	75.3	75.8	76.5	77.9	76.9
남자	87.7	84.2	82.8	81.8	80.8
여자	63.5	67.2	70.2	73.9	73.0
실업률총수	2.0	2.6	4.6	5.0	4.5
남자	2.7	2.7	4.5	5.5	5.0
여자	1.1	2.5	4.7	4.6	3.9

	1970*	1975	1980	1985	1988
프랑스					
참가율총수	68.3	68.9	69.5	67.4	67.0
남자	86.9	85.1	83.4	78.7	77.0
여자	49.8	52.9	55.6	56.4	57.2
실업률총수	1.7	3.7	6.0	10.1	10.1
남자	1.3	2.7	3.9	8.3	8.0
여자	2.4	5.4	9.1	12.6	12.8
서독					
참가율총수	69.5	67.9	66.7	65.1	66.8
남자	92.5	87.0	83.6	80.0	80.8
여자	48.1	49.7	50.0	50.3	52.8
실업률총수	0.4	3.7	3.0	7.7	7.4
남자	0.3	3.2	2.2	6.6	6.3
여자	0.5	4.6	4.4	9.5	9.2
이탈리아					
참가율총수	54.9	54.2	59.8	58.9	60.2
남자	82.0	79.6	81.2	77.7	77.2
여자	29.1	29.9	39.2	40.6	43.6
실업률총수	3.2	3.3	7.6	10.3	12.0
남자	2.9	2.8	4.8	6.8	8.1
여자	4.0	4.6	13.2	16.7	18.8
노르웨이					
참가율총수	70.0	71.5	77.0	79.1	81.8
남자	87.8	88.0	89.8	88.3	89.0
여자	51.7	54.6	63.8	69.5	74.4
실업률총수	1.6	2.2	1.7	2.7	3.1
남자	1.3	1.7	1.3	2.2	3.0
여자	2.1	2.9	2.1	3.2	3.3
포르투갈					
참가율총수		70.7	71.8	71.8	71.6
남자		93.3	90.8	85.8	83.9
여자		50.6	54.9	58.8	60.0
실업률총수		4.9	7.3	8.1	5.2
남자		4.4	3.5	6.1	3.5
여자		5.8	13.0	11.0	7.5
스페인					
참가율총수	61.8	62.0	58.7	57.5	59.8

	1970*	1975	1980	1985	1988
남자	93.1	91.0	84.0	80.2	79.0
여자	31.6	33.8	34.0	34.9	40.7
실업률총수	2.0	4.3	12.6	22.0	18.5
남자	2.1	4.6	11.9	20.3	14.1
여자	1.5	3.7	14.1	25.8	26.9
스웨덴					
참가율총수	75.8	80.1	82.9	83.7	85.8
남자	90.6	91.0	89.8	87.5	88.9
여자	60.6	68.9	75.8	79.7	82.6
실업률총수	1.5	1.6	2.0	2.8	1.6
남자	1.3	1.3	1.7	2.8	1.6
여자	1.8	2.0	2.3	2.9	1.6
영국					
참가율총수	74.6	75.7	76.6	75.2	77.3
남자	96.1	92.9	91.5	87.7	88.7
여자	53.5	58.6	61.7	62.6	65.8
실업률총수	2.2	3.9	6.5	12.4	8.3
남자	2.9	5.1	7.5	14.4	9.9
여자	0.8	2.1	5.1	9.5	6.0
네덜란드					
참가율총수	58.5	57.2	57.6	58.6	59.1
남자	86.1	81.9	78.3	75.8	75.2
여자	30.4	32.0	36.3	41.0	42.7
실업률총수	1.3	3.9	4.6	13.1	11.3
남자	1.4	4.2	4.3	13.1	10.8
여자	0.9	3.1	5.2	13.1	12.2

주 : 네덜란드는 1971년, 노르웨이·스웨덴은 1972년 자료임.

자료 : OECD, Labor Force Statistics, 1989.

<부표 2> 여성인력 활용가능부문

	직종	직무	담당업무	업무요건
관 리	교육훈련직	교육기획	• 국내외 교육기관 정보조사 • 교육개발	정보수집분석력 문장력
		교육운영	• 개별 교육계획 작성 및 선행계획 수립 • 평가 및 결과처리 • 교육인행(모조)	지구력, 집중성 이해판단력 언어이해력
사		교육관리	• 교육기록관리 • 시설, 기자재관리 • 교재관리	지구력, 근골성 이해판단력 계수능력, 언어이해력
	기획·조사	정보조사	• 정보자료의 수집 및 번역, 요약(국내외 정치, 경제, 산업, 정 쟁사 등) • 정보의 활용(정보보고, 배포) • 정보자료의 발간 • 자료집 운영	지구력 사고성 정보수집분석력 외국어능력 언어이해력
홍 보 우 치	홍보	출판·방송 홍보기획	• 자료발간(편집기획, 레이아웃, Re-Writing 등 교정, 배포관 리) • 시내 방송운동(방송기획, 매체접촉, 취재, 녹음, 어나운스, 취루관리) • 촬영, 사진자료관리 • 신규 홍보수단 강구(배치지정용 형지지 발간, 사진, VTR, 카세트녹음)	지구력 심중성 상의성 언어이해력 준정력 외국어능력
		커뮤니케이션	• 홍보비서의 개발(홍보자료의 발굴, 속지) • 언론계 동향분석 • 심층스피킹, 지면분석, 경쟁사 홍보내용 • 소비자 정보활동	정보수집분석력 이해판단력 언어이해력

국 영 업 적 국	외자유매	시장조사 및 공급선 관리	· 구입종목의 시장조사 · 관련제품의 시장조사 · 거래선 신용조사(구입종목, 대충종목, 신제품, 거래선인원) · 위험현황 추이조사	- 활동성 - 정보수집력 - 외국어능력 - 재수능력
	해외마케팅	해외정보및 지역관리	· 지역연구 및 Country File 기록유지 · 지역별 Country Risk 조사 · 경쟁사, 경쟁국 동향조사분석 · 해외시장 동향조사 · 문화차이 정보전달 및 분석 · 대체외지점 설립정보서비스 · 수출입 통계자료수집, 분석	- 상세함 - 최밀함 - 정보수집분석력 - 외국어능력
	수출직	수 주	· 상담 · 원자재선, 원자구입요소별 가격비율인출 · TLX 수·발신 · 견본제작 및 발송 · 신제품개발(소재, 스타일) · 수출결과 검토 및 보고	- 활동성 - 사고성 - 지구력 - 전문지식 - 외국어능력
	수입직	수입기획	· 국내외시장조사 및 수요예측 · 정보자료 수집, 분석	- 정보수집분석력 - 외국어능력
	국내마케팅	마케팅정책 관 측	· 마케팅환경 분석(소비자행동, 경쟁상황, 마케팅현황, 매급기 구 등) · 시장조사 및 수요예측 · 제품인식 MIX(제품차별화, 포장디자인, 상표 등) · 소비자행동(소비자태스트, 소비자관측물, 소비자행사, 소비자 자교육)	- 창의성, 선종성 - 지구력 - 전문지식 - 언어이해력 - 창의성 - 활동성

	상품화	· 신제품(완제품종류, 판매, 대충업체, 신제품개발사) · 판매물량 · 공장전력, 인력, 소 등의 판매행사	- 정보수집분석력 - 언어이해력
		· 상품표지서인 설정 · 상품결정(상품명, 포장재, 심플, 컬러) · 상품단가 및 포장방법 결정 · 포장소재 개발 · 포장디자인 · 출시일, 시인테스트	- 창의성 - 선종성 - 정보수집분석력 - 기획창의력 - 언어이해력 - 감각성
	상품광고	· 광고환경과학 · 광고물 기획 · 광고매체 전략(TV, 라디오, 신문, 잡지) · 표현전략(캐치프레이즈, 헤드라인, 카피, 릴리스트) · 광고물제작(CM, 인쇄판촉물, 옥외광고물) · 광고효과 측정분석	- 창의성 - 자주성 - 기획창의력 - 언어이해력 - 감각성
		· 제품지 신용실태 조사 · 제품이미지 조사 · 광고판촉 효과 조사 · 품질테스트 · 제품구매실태 조사 · 제품구매희도 조사	- 사고성 - 활동성 - 지구력 - 정보수집분석력 - 추리능력
	판매교육 시장조사	· 교재개발· 보급 및 교육자료 제공 · 일반시장 조사(경기변동, 시장) · 제품수요 추정 · 거래선 조사(도소매가격, 거래현도, 신용조사, 재고진행 노출 조사) · 경쟁사 조사	- 활동성 - 사고성 - 정보수집분석력

	국내편목	관 세	· 대리실원예 · 상수요(당근)원예 · 절주원예 · 수리, 연재원예 · 주종, 신종, 동선원예	- 활동성 - 사교성 - 심재함
	보험계약보전		· 계약실내, 지급관리, 계약보전관리, 원기관리, 재보험, 보험 상당	- 지구력, 신중성, - 균형성, 사교성, 활동성
	백화점원예	비이비 주 무	· 자료, 정보수집, 시장조사(동업제) · 매장관리, 재고관리 · 재규정업무처리(진포, 장부) · 재전포함성 결재보고 · 비품, 시설물관리 · 매장전원관리 · 거래실관리 · 매장관리(별시매장구입, 판매, 매장환경 정돈) · 고객관리(고객의 소리, 물품관리, 습득관리 및 관리, 고객고객관리) · 판매원지도(근태관리, 아르바이트 및 파트관리, 매장순회지도, ROLE PLAYING)	- 사교성 - 활동성 - 균형성 - 이해단단력 - 재수능력 - 신중성 - 협조성 - 이해단단력 - 심재함 - 친근감
기	연구개발	· 기초응용연구 · 신제품, 신종종, 신기술개발 · 품질개발연구 · 품질개선연구 · 기술조사 · 연구기획		- 지구력 - 창의성 - 심재함 - 치밀성 - 전문지식 - 정보수집분석력

출 관	실제·별지니 어떻	· 기계설계 · 전기, 전자설계 · 공작설계 · 치공설계 · 건축설계 · 인쇄설계 · 수도설계, 배관설계, 브로젝트, 생산설계 · 치공구설계, 전직설계	· 구조설계 · 시스템설계 · 계장설계 · 도록설계 · 수자원설계 · 플랜트설계	- 지구력 - 창의성 - 심재함 - 치밀성 - 전문지식 - 정보수집분석력
	생산 및 시공	· 제조기술 · 시공 · 설비보존		활동
	품질관리직	· TQC활동 · A/S관리 · 표준화 · 검사시험		- 활동성, 지구력 - 재수능력 - 정보수집분석력 - 전문지식
	안전관리	· 산업안전(사고조사, 원인분석, 예방책연구, 실태개선 및 피경수준 유지, 안전교육, 점검, 홍보활동, 교육, 사고사례집, 발간, 직업체 예방관리)		신중성, 협조성
	기술관리	· 기술관리 · 특허관리 · 기술정보관리		- 지구력, 신중성 - 전문지식, 외국어능력 - 정보수집분석력
	전 산	· 시스템계획 · 시스템기술지원 · 시스템분석 및 설계 · 시스템개발 · 시스템운용 및 개선		- 지구력 - 전문지식 - 심재함 - 치밀성 - 이해단단력

	· 전산설비 운영 · 자료처리	계수능력
의료직	의사, 처사, 약사, 의료보조원, 방사선기사 영양사, 간호원	전문지식 여성고용정책
창작예술직	디자인, 그래픽, 카피라이터, 실내용악 등	여성의 감각, 섬세함, 창의성 요구
도시직	과료조사, 번역, 통역, 사서, 필경사	섬세함, 정확함, 세밀함
교 직	중등교사, 기술사 사감, 기술사 등장	전문지식 및 지도력, 섬세함
번역직	번역사, 번역사무장, 모험해리사	전문지식요구
기타직	교원직, 조리직, 인쇄직, 키원직	